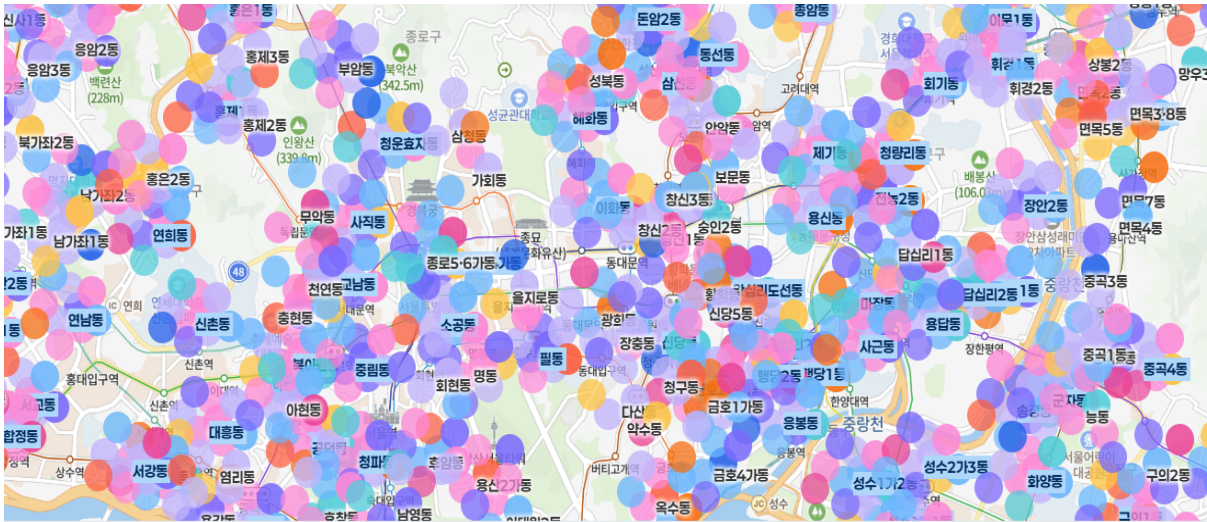


서울의 목소리

서울의 목소리 분석 보고서

Seoul Voice Platform Project | 2026. 04. 01 - 05. 21

| 4,818건 | 10개 항목 | 25개 자치구 | 51일간 |
|----------|-------------|----------|------------------|
| 전체 응답 수집 | 불편사항 전항목 분석 | 서울 전역 응답 | 2026.04.01~05.21 |



© 서울의목소리 운영팀

문의: voiceofseoul2026@gmail.com

목 차

| | |
|--|----|
| 1. 보고서 개요 | 3 |
| 2. 조사방법론 | 5 |
| 3. 응답자 유형분석 | 7 |
| 4. <시민 불편사항> 조사결과 | 11 |
| 5. 불편항목별 심층 분석 | 14 |
| 5-1 집값월세 / 5-2 출퇴근교통 / 5-3 물가생활비 / 5-4 녹지환경 / 5-5 여가문화인프라 | |
| 5-6 일자리노동 / 5-7 육아보육돌봄 / 5-8 교육 / 5-9 안전치안 / 5-10 의료복지 접근성 | |
| 6. <차기시장에게 바란다> 결과 분석 | 61 |
| * 참조: 집단민원성 불편사항 | 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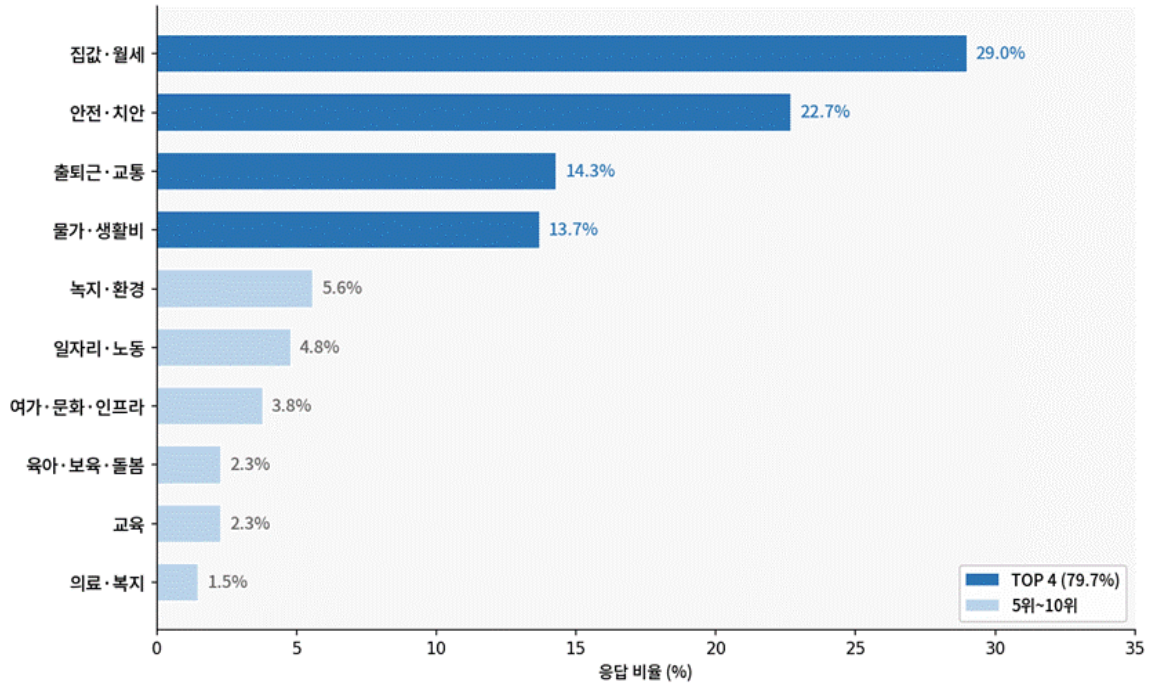
1.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집된 서울시민 불편·고충 조사 전체 4,818건을 대상으로 Q6(불편사항), Q7(선택 이유), Q8(차기 시장 요구사항)을 연계 분석한 결과임.

| 구분 | 내용 |
|----------|---|
| 조사 기간 | 2026년 4월 1일 ~ 5월 21일 (51일간) |
| 전체 수집 건수 | 4,818건 (전수 분석) |
| 수집 채널 | 웹(55.5%) · 링크공유(40.5%) · QR(2.7%) · 직접(1.1%) · 카카오휘(0.2%) |
| 분석 항목 | Q6 불편사항 10개 · Q7 선택 이유(주관식) · Q8 차기 시장 요구(주관식) |

불편사항 집계 (2026년 5월 21일 기준)

| 순위 | 항목 | 응답수 | 비율 | 비고 |
|-----|-----------|--------|-------|----------------|
| 1위 | 집값·월세 | 1,395건 | 29.0% | ★ TOP 4 |
| 2위 | 안전·치안 | 1,096건 | 22.7% | ★ TOP 4 |
| 3위 | 출퇴근·교통 | 690건 | 14.3% | ★ TOP 4 |
| 4위 | 물가·생활비 | 658건 | 13.7% | ★ TOP 4 |
| 5위 | 녹지·환경 | 271건 | 5.6% | |
| 6위 | 일자리·노동 | 231건 | 4.8% | |
| 7위 | 여가·문화·인프라 | 184건 | 3.8% | |
| 8위 | 육아·보육·돌봄 | 111건 | 2.3% | |
| 9위 | 교육 | 109건 | 2.3% | |
| 10위 | 의료·복지 접근성 | 73건 | | |
| 합계 | | 4,818건 | 100% | TOP 4 합산 79.7% |



📌 특이점: 안전·치안의 급부상. 4월 22일 이후 안전·치안 응답자가 (27명, 1.4%) → 1,096명(22.7%)으로 약 40배 폭등. 해당 응답자 95.7%가 여성, 83.5%가 20대이하. 5월 초 여성 대상 범죄 이슈의 SNS 확산에 따른 집중 유입으로 분석됨.

2. 조사 방법론

2-1. 조사 설계

서울의목소리 실행단이 설계·운영한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었음. 조사 참여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확률 표본(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웹 직접 접속·URL 공유·QR코드 등 다중 채널을 통해 모집되었음.

2-2. 질적 내용 분석

Q7(선택 이유)과 Q8(차기 시장 요구사항)은 비정형 주관식 응답으로, ① 반복 키워드 추출 → ② 의미 범주화 → ③ 대표 인용 선정의 3단계 질적 코딩 방식을 적용하였음.

2-3. 집단민원 처리 방침

동일 주제의 반복 응답(집단민원)은 개별 건수를 그대로 데이터에 포함하여 분석함. 집단민원의 존재와 규모는 별도 항목(7장)에 명기함.

⚠ 집단민원 현황 (상위 3건)

고척동 교통 소외·신구로선 착공 요구(123건), 도봉산 주변 환경 정비(37건),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원안 이행(64건) 등 총 7건. 모두 데이터에 그대로 포함됨.

2-4. 표본의 한계

자발적 참여 특성상 특정 연령·성별·지역이 과대표집될 수 있음. 안전·치안 항목의 급증은 5월 초 특정 채널을 통한 집중 유입 편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항목 분석 시 이를 감안해야 함. 여성 응답자(62.0%)와 20대이하(30.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2-5. 설문 문항

본 조사에 사용된 온라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음.

참여 안내

본 설문은 비상업적 캠페인 자료로만 사용됨. 응답은 익명 처리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음. 거주지(동), 출생연도, 성별 등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 응답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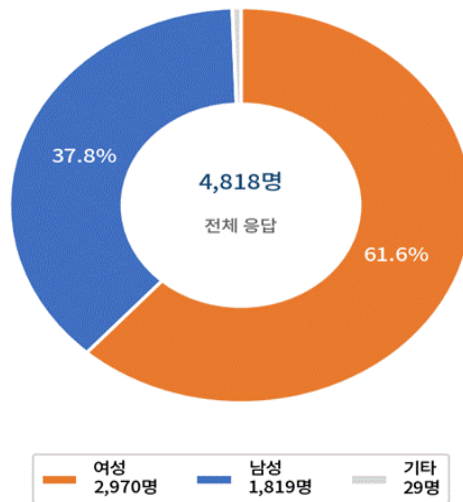
| 문항 | 질문 내용 | 유형 | 선택지 / 비고 |
|------|-----------------------------------|----------|--|
| Q1 * | 지금 주로 생활하시는 곳(거주·근무·활동)이 어디인가요? | 선택형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선택 |
| Q2 * | 출생연도를 입력해주세요. | 단답형 | 4자리 연도 입력 |
| Q3 * |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 선택형 | 여성 / 남성 / 기타 |
| Q4 * | 본인의 생활 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선택형 | 직장인 / 자영업·소상공인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 구직자 / 학생 / 주부·육아·돌봄 / 은퇴·노년 / 기타 |
| Q5 | 서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 단답형 (선택) | 자유 응답 |
| Q6 * | 요즘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불편과 고충은 무엇입니까? | 선택형 (1개) | 집값·월세 / 출퇴근·교통 / 물가·생활비 / 육아·보육·돌봄 / 교육 / 녹지·환경 / 안전·치안 / 의료·복지 접근성 / 일자리·노동 / 여가·문화·인프라 |
| Q7 * | 위와 같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서술형 | 200자 이내 자유 응답 |
| Q8 * | 차기 서울시장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서술형 | 200자 이내 자유 응답 |

* 필수 문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및 연락처 수집 동의(선택)는 설문 말미에 별도 고지됨.

3. 응답자 유형 분석

3-1.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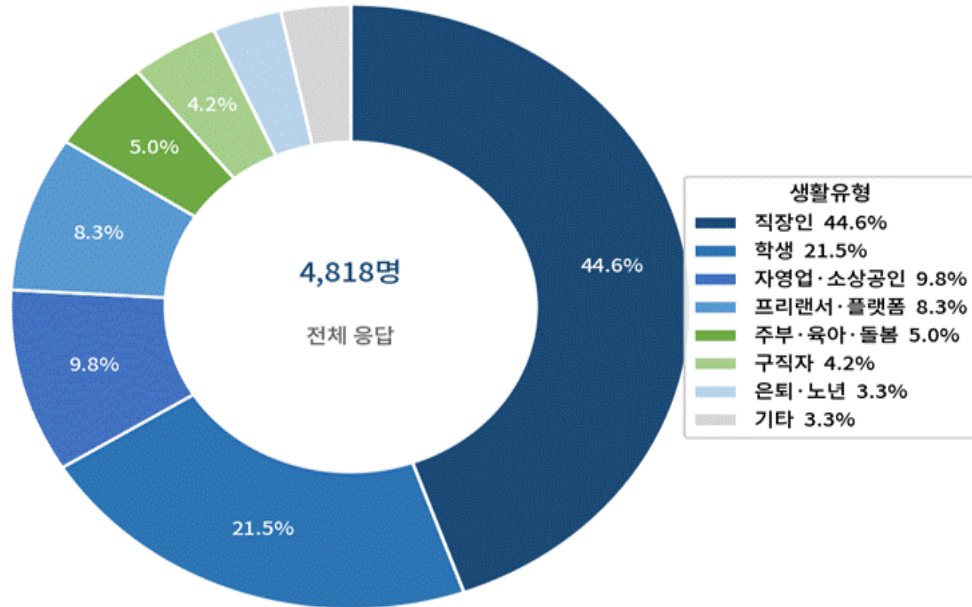
| 구분 | 여성 | 남성 | 기타 |
|-----|--------|--------|------|
| 응답수 | 2,970명 | 1,819명 | 29명 |
| 비율 | 61.6% | 37.8% | 0.6% |



3-2. 생활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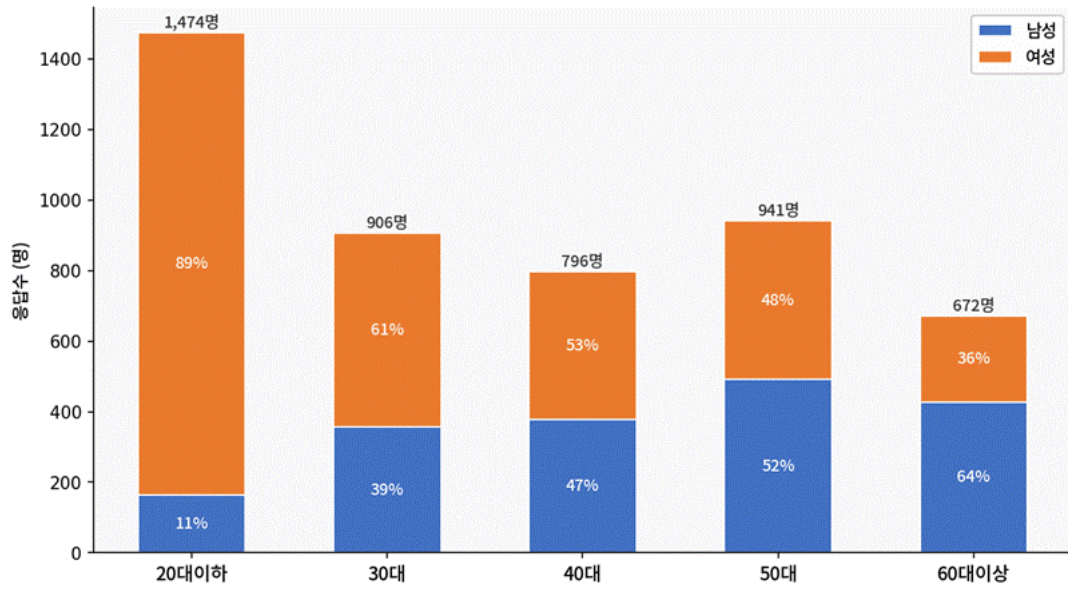
| 생활유형 | 응답수 | 비율 | 주요 불편 1~2위 |
|-------------|--------|-------|----------------|
| 직장인 | 2,148명 | 44.6% | 집값·월세 / 출퇴근·교통 |
| 학생 | 1,038명 | 21.5% | 안전·치안 / 집값·월세 |
| 자영업·소상공인 | 474명 | 9.8% | 집값·월세 / 물가·생활비 |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 400명 | 8.3% | 집값·월세 / 출퇴근·교통 |
| 주부·육아·돌봄 | 241명 | 5.0% | 집값·월세 / 물가·생활비 |
| 구직자 | 201명 | 4.2% | 안전·치안 / 집값·월세 |

| | | | |
|-------|------|------|----------------|
| 은퇴·노년 | 158명 | 3.3% | 집값·월세 / 물가·생활비 |
| 기타 | 158명 | 3.3% | 집값·월세 / 물가·생활비 |



3-3. 연령별 · 성별 분포

| 연령대 | 남성 | 남 비율 | 여성 | 여 비율 | 합계 | 전체비 |
|-----------|---------------|-------|---------------|-------|---------------|---------------------|
| 20대 이하 | 165명 | 11.2% | 1,309명 | 88.8% | 1,474명 | 30.6% |
| 30대 | 357명 | 39.4% | 549명 | 60.6% | 906명 | 18.8% |
| 40대 | 377명 | 47.4% | 419명 | 52.6% | 796명 | 16.5% |
| 50대 | 492명 | 52.3% | 449명 | 47.7% | 941명 | 19.5% |
| 60대 이상 | 428명 | 63.7% | 244명 | 36.3% | 672명 | 13.9% |
| 합계 | 1,819명 | 37.8% | 2,970명 | 61.6% | 4,790명 | (기타 29 포함 4,818) |



3-4. 자치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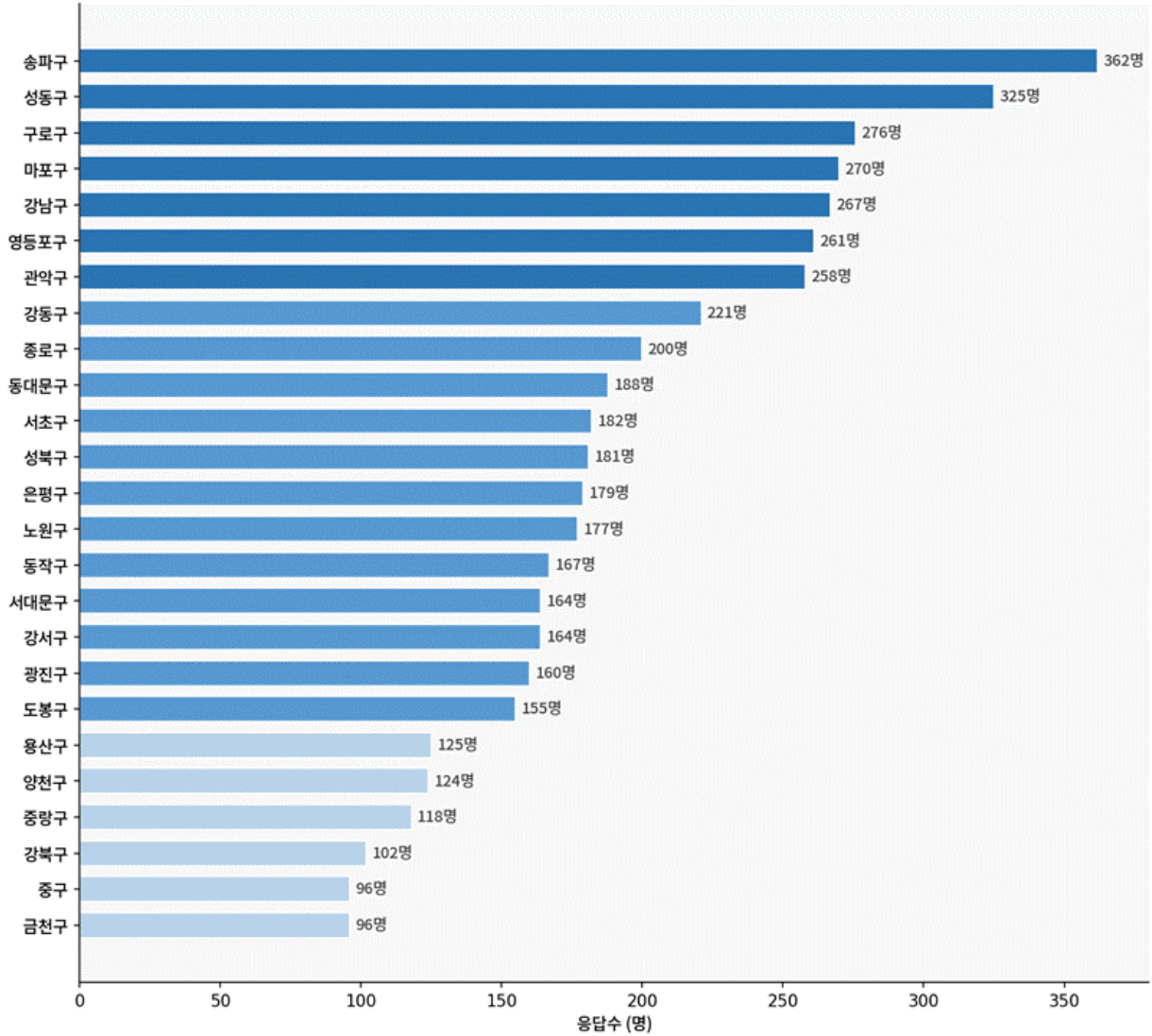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응답이 수집되었음.

| 자치구 | 응답수 | 비율 |
|------|------|------|
| 송파구 | 362명 | 7.5% |
| 성동구 | 325명 | 6.7% |
| 구로구 | 276명 | 5.7% |
| 마포구 | 270명 | 5.6% |
| 강남구 | 267명 | 5.5% |
| 영등포구 | 261명 | 5.4% |
| 관악구 | 258명 | 5.4% |
| 강동구 | 221명 | 4.6% |
| 종로구 | 200명 | 4.2% |
| 동대문구 | 188명 | 3.9% |

| 자치구 | 응답수 | 비율 |
|------|------|------|
| 노원구 | 177명 | 3.7% |
| 동작구 | 167명 | 3.5% |
| 서대문구 | 164명 | 3.4% |
| 강서구 | 164명 | 3.4% |
| 광진구 | 160명 | 3.3% |
| 도봉구 | 155명 | 3.2% |
| 용산구 | 125명 | 2.6% |
| 양천구 | 124명 | 2.6% |
| 중랑구 | 118명 | 2.4% |
| 강북구 | 102명 | 2.1% |

| | | |
|-----|------|------|
| 서초구 | 182명 | 3.8% |
| 성북구 | 181명 | 3.8% |
| 은평구 | 179명 |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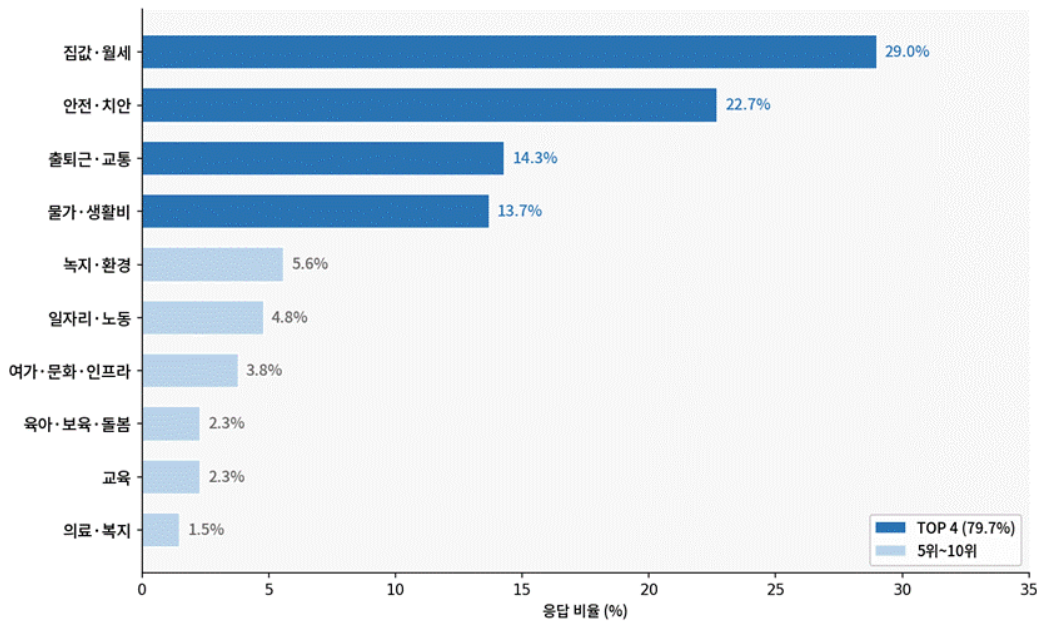
| | | |
|-----|-----|------|
| 중구 | 96명 | 2.0% |
| 금천구 | 96명 | 2.0% |



4. <시민 불편사항> 조사결과

4-1. 전체 불편사항 순위

TOP 4가 전체의 79.7%를 차지하며, 서울시민의 불편은 주거·안전·교통·물가 네 축으로 수렴됨.



4-2. TOP 4의 의미 — "서울은 비싸고, 무섭고, 막히고, 딱딱하다"

서울의목소리에서 시민의 최대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주거, 교통, 물가의 3가지 문제는 서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직장에서 멀리, 임대료가 싼 외곽으로 밀려난다.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 인프라는 열악해지고 출퇴근 시간은 늘어난다. 구로구 교통 불만(49.6%)이 서울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값·월세를 최대 문제로 꼽은 응답자의 8.4%(112건)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탈서울을 언급한다. 서울은 세계인이 찾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일 수 있어도, 정작 서울시민들에겐 경계 안에 머물러 버텨내기가 갈수록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 위에 안전·치안의 문제가 얹혀진다. '귀가길이 무섭다'는 공포를 호소하는 여성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응답자의 95.7%가 여성, 20대이하가 83.5%라는 사실은, 안전 치안이 특정

성별·연령에게 최대의 생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아 안심할만한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들에게 서울생활이란 극도의 공포와 불안, 폭력과 사고의 위험에 대한 일상적 노출이다. 안전치안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감을 반영한다.

서울은 지금 경제적 압박(집값+물가 42.7%)·이동 불편(교통 14.3%)·안전 불안(치안 22.7%)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중 압력 도시이다. ‘서울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묻는 질문(Q5)에서 '비싸다·복잡하다·집값·체증' 등 부정 키워드(12.8%)가 긍정 키워드(11.7%)를 앞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4-3. 성별 × 연령대 10개 집단 불편사항 우선순위

응답자를 성별(남·여) × 연령대(5구간)로 구분한 10개 집단의 불편사항 순위를 분석했음.

▶ 남성 5개 집단 — 불편사항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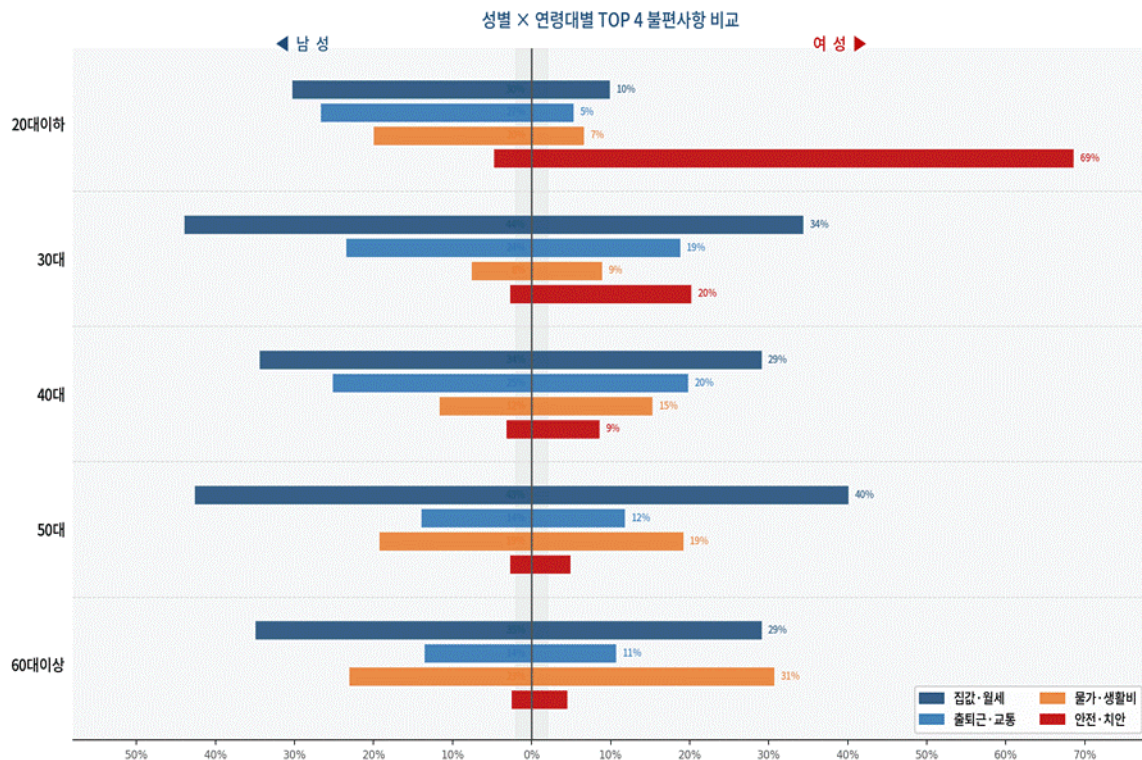
| 연령대 | N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20대이하 | 165 | 집값·월세 30.3% | 출퇴근·교통 26.7% | 물가·생활비 20.0% | 일자리·노동 6.1% | 안전·치안 4.8% |
| 30대 | 357 | 집값·월세 44.0% | 출퇴근·교통 23.5% | 물가·생활비 7.6% | 여가·문화 7.0% | 녹지·환경 6.4% |
| 40대 | 377 | 집값·월세 34.5% | 출퇴근·교통 25.2% | 물가·생활비 11.7% | 여가·문화 7.7% | 녹지·환경 7.4% |
| 50대 | 492 | 집값·월세 42.7% | 물가·생활비 19.3% | 출퇴근·교통 14.0% | 일자리·노동 6.3% | 녹지·환경 5.5% |
| 60대이상 | 428 | 집값·월세 35.0% | 물가·생활비 23.1% | 출퇴근·교통 13.6% | 일자리·노동 8.6% | 녹지·환경 7.0% |

▶ 여성 5개 집단 — 불편사항 상위 5위

| 연령대 | N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20대이하 | 1,309 | 안전·치안 68.6%★ | 집값·월세 9.9% | 물가·생활비 6.6% | 출퇴근·교통 5.3% | 일자리 2.8% |
| 30대 | 549 | 집값·월세 34.4% | 안전·치안 20.2% | 출퇴근·교통 18.8% | 물가·생활비 8.9% | 녹지·환경 6.2% |
| 40대 | 419 | 집값·월세 29.1% | 출퇴근·교통 19.8% | 물가·생활비 15.3% | 녹지·환경 9.8% | 육아돌봄 6.2% |
| 50대 | 449 | 집값·월세 40.1% | 물가·생활비 19.2% | 출퇴근·교통 11.8% | 녹지·환경 6.9% | 일자리 6.0% |
| 60대이상 | 244 | 물가·생활비 30.7% | 집값·월세 29.1% | 출퇴근·교통 10.7% | 일자리 6.6% | 육아돌봄 5.3% |

▶ 성별 × 연령대별 TOP 4 항목 비교 — 나비형 막대그래프

가운데 수직선 기준, 왼쪽이 남성 / 오른쪽이 여성. 막대 길이로 양쪽 비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음.



5. 불편항목별 심층분석

| | | |
|------------|--------------|-----------|
| 5-1 | 집값·월세 | 전체 데이터 현황 |
|------------|--------------|-----------|

| | |
|-----------|--|
| 요약 | <p>열심히 일해도 살 수 없는 도시, 모든 세대·계층이 집값과 월세부담 토로</p> <p>집값·월세 응답자들은 ‘절망’과 ‘박탈’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한다”, “내 집 마련은 이제 꿈 이야기”, “서울을 떠나야 하나 고민”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집값이 비싼 것을 넘어 집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주거복지 정책의 특정 집단 편중에 따른 소외감, 전세사기로 인한 공포,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분노 등이 나타났다.</p> |
|-----------|--|

5-1-1. 분석 개요

집값·월세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불편사항으로, 서울 시민의 최대 고충 의제다. 3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지만, 사실상 전 연령층이 고루 참여하며, 성별도 균형을 이룬다. 생활유형에서는 직장인이 압도적 다수이지만, 그외 영역에서도 고루 응답했다. 특히 은퇴·노년층의 비율이 타 불편사항 대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후 주거 불안이 현존하는 것을 시사한다.

5-1-2. 주요 감정언어 분석

집값·월세 응답에서는 ‘절망’, ‘좌절’, ‘포기’, ‘박탈감’ 등 강렬한 감정 언어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80%에서 이러한 감정 표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비싸다’는 기술을 넘어, 노력과 보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구조적 좌절과 그 안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응답의 중심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 |
|---|
| <p>"평생을 일해도 내 돈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p> <p>— 광진구 40대 남성 직장인</p> |
| <p>"생활권은 서울인데 내 집은 서울에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고 막막해요. 비싼 집 값으로 미래를 그릴 수 없어요."</p> <p>— 동작구 30대 여성 학생</p> |

| |
|---|
| <p>"아무리 발버둥쳐도 무주택 월세살이를 못 벗어나는 절망."</p> <p>— 성북구 60대 남성 직장인</p> |
| <p>"가정을 꾸리고 내집마련하기 위해 애써 모아도 너무 빠른 집값상승에 허탈감 상실감이 너무 심함."</p> <p>— 강동구 40대 남성 직장인</p> |
| <p>"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도 포기했고 집값 때문에 자녀양육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p> <p>— 강동구 4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p> |
| <p>"꿈을 찾아 지방에서 올라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취 17년 차, 여전히 원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p> <p>— 동작구 40대 여성 직장인</p> |
| <p>"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짐."</p> <p>— 종로구 6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p> |
| <p>"아이와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p> <p>— 은평구 50대 여성 직장인</p> |
| <p>"나날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잘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숨만 나오는 세상이 슬프네요."</p> <p>— 금천구 50대 여성 구직자</p> |
| <p>"직장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절대 살 수 없는 높은 집값 때문에 우울합니다."</p> <p>— 송파구 40대 여성 직장인</p> |

5-1-3. 주제별 분석

① 집값 폭등과 내집마련 절망 — "열심히 일해도 평생 살 수 없는 구조"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 "내 집 마련은 꿈 이야기", "집 걱정만 줄어도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어가 세대를 가로질러 반복된다. 서울 집값이 노동소득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며, 특히 30~40대에서 결혼·출산 포기과 직결되는 서술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목동 6억이 지금 20억, '최저시급으로 내 집 마련은 어려운 일'처럼 구체적 수치를 들어 구조적 불합리를 지적하는 응답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 |
|--------------------|--|
| 노동소득·집값 완전 이탈 | "월급은 3배 올랐는데 집값은 10배" — 30~40대 직장인, 구체 수치로 구조 비판 |
| 결혼·출산 포기로 직결 |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 아이 한 명도 키우기 어렵다 — 40대 남성 집중 서술 |
| 갭투자·다주택 구조 분노 | 능력 없이 부동산 시세차익만 누리는 구조, 투기 자본 규제 직접 요구 |
| "서울을 떠나야 하나" 이탈 공포 | 서울서 나고 자랐지만 경기·지방으로 밀려나는 친구들 — 30대 서울 토박이 |

"서울 외곽 6억대 집도 개인 자금 2억 이상 모아야 하는데, 개인이 10년간 매월 200만원씩 모아야 가능합니다. 그간 월세·생활비 포함하면 대기업 안 다니면 20년은 걸려야 집 장만. 내집마련하느라 20년 인생이 지옥. 희망 없고 결혼 생각도 못 합니다." — 양천구 40대 여성 직장인

"5년 전 목동아파트는 6억이었습니다. 현재는 20억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 양천구 30대 남성 직장인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주변 친구들도 서울의 집값을 버티지 못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떠나는 서울'이 아닌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서울'이 되게 해주세요." — 강북구 30대 남성 직장인

② 전월세 과부담과 주거비의 삶 잠식 — "월급이 월세로 사라진다"

"월급의 절반이 월세", "수입에서 2/3가 주거비", "월세 내면 돈을 못 모음"이라는 표현이 사회초년생부터 50대 프리랜서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매매가 불가능하니 전세를 노리지만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사기 우려로 전세도 꺼려지면서 결국 비싼 월세에 갇히는 구조가 반복 서술되었다. '대학가 담합', '에어비앤비로 인한 월세 2배 폭등', '관리비 꿈수 인상' 등 임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

| | |
|----------------|--|
| 월급 대비 월세 비율 과중 | "수입의 절반~2/3가 월세", 200만원 월급에 월세 70만원 이상 — 사회초년생·20대 집중 |
| 전세 소멸·월세 강제 전환 | 전세 물량 극감, 사기 우려로 전세도 못 들어가 비싼 월세만 남음 |

| | |
|-----------------|---|
| 대학가·역세권 담합 의혹 | 대학가 주변 월세 중심지보다 비쌌, 에어비앤비 전환으로 월세 폭등 |
| 관리비·부대 비용 필수 인상 | 재계약 시 월세 상한 회피 목적 관리비 인상, 이삿짐·청소 부대 비용 과다 |

"본가는 지방이라 자취는 해야 하고 직장이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가 어마무시함. 사회초년생 월급은 200대 초중반인데 월세로만 절반이 나가서 돈을 모을 수가 없음." —

영등포구 20대 여성 직장인

"열심히 일하고 돈도 충분히 벌고 있는데 모은 모든 돈을 집과 가게 월세로 내고 있어요. 저도 집 사서 차라리 용자금 갚는 데 쓰고 싶어요. 이렇다 보니 다시 지방으로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 마포구 40대 여성

자영업·소상공인

"에어비앤비 때문에 반지하나 다가구 월세가 두 배 이상으로 뛰고 있고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숙박업자에게 세를 주고 있어요. 주택을 숙박업으로 사업을 하는 건 못하게 막아야 서민주거 안전망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 서초구 50대 여성 자영업·소상공인

③ 전세사기·주거 불안·보증금 위협

"전세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직접 전세사기 경험"이라는 서술이 20~30대 청년 응답자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내 생애 최초의 독립 자금을 통째로 잃는 경험'으로 서술되었으며, 이것이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비싼 월세를 감수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 장기전세 거주자의 '20년 뒤 쫓겨날 걱정', 재계약 시 보증금 급등도 주거 불안의 일상적 형태로 서술되었다.

| | |
|---------------|---|
| 전세사기 직접 경험·공포 | 사회초년생 전세 자금 피해 경험 직접 서술, 사기 우려로 전세 기피 확산 |
| 보증금 급등·재계약 위협 | 2년마다 보증금·월세 상승, 이사 부대 비용까지 반복 지출 — 30대 집중 |
| 장기전세 퇴거 공포 | 20년 거주 장기전세 만기 쫓겨날 걱정,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 |
| 전세사기 제도 대응 요구 | 규제·처벌·보증금 보호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 20~30대 직장인 다수 |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직주근접이 어렵고, 사회초년생일 때 월 200에 월세만 최소 70이 들어가니 돈 모으기 쉽지 않고, 전세를 들어가자니 전세사기가 많아 모은 돈마저 날림(직접 경험담). 결국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집 장만, 결혼 생각이 어렵습니다." — 강동구 30대 여성 직장인

"독립해야 하는데 독립이 너무 어렵습니다.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전세도 비싸고 심지어 사기당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 영등포구 20대 여성 직장인

"서울시에서 일하고 세금 내는 노동자가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만 1만 7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피해지원에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 송파구 30대 남성 구직자

④ 주거복지 사각지대 — "청년·신혼만의 정책, 나는 어디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40~50대 미혼·비혼, 1인 가구,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중간층 등 '청년 기준에도 신혼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집단들이 제도 탈락 경험을 공통적으로 서술하였다. 공공임대·청년주택 소득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거나, 청약이 유자녀·기혼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력해도 기회 자체가 없다는 구조적 좌절이 중심 감정으로 나타났다.

| | |
|--------------------|---|
| 40~50대 미혼·비혼 완전 배제 | 청년 기준 초과, 신혼 기준 미해당, 다자녀 없음 — "나는 어디에" 소외감 집중 |
| 1인 가구 정책 편중 | 청년 1인 좁은 원룸 지원뿐, 중장년 1인·노년 1인 정책 부재 직접 지목 |
| 소득 기준 비현실성 | 임대주택 소득 기준 낮아 탈락, 차상위·기초 아니면 사각지대 |
| 한부모·비혼 가구 설계 제외 | 자녀 성인 되면 지원 종료, 한부모 자산 축적 불가 구조 — 주거 난민 위기 |

"청년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주택 청약은 많으나 결혼하고파도 못하는 낀 40대가 살 수 있는 장년주택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 서초구 40대 여성 직장인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고 아이는 한 명인데, 신혼이 지났다고 혜택 없고 아이 한 명이라 없고 집값은 너무 올라 둘째 계획도 못 하겠어요." — 성동구 3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혼인 중심의 주거 정책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역적 형평성이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은평구 30대 여성 구직자

⑤ 재개발·투기 구조와 주거권 충돌 — "집은 거주 공간, 투기 수단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한 응답이 찬반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개발이 원주민을 쫓아내는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모아타운 피해 사례, 정비사업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재개발 찬성률 75% 원칙에 의한 소수 반대 주민 강제 청산 문제 등이 구체적 지명·사업명과 함께 서술되었다. 집은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 응답에 깔려 있었다.

| | |
|----------------|---|
| 재개발로 원주민 강제 이탈 | 살던 동네에서 쫓겨남, 재건축 완료까지 수년간 거래 정지 — 낙후지역 주민 |
| 모아타운 피해·강제 청산 | 홍제동 모아타운, 조합 승인 후 반대 주민 헐값 청산 — 백지화 요구 |
| 투기 수단화된 주택 시장 | "집은 재산이기 전에 필수 생활요소" — 다주택·갭투자 구조 규제 요구 |
|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요구 | 토지임대부·장기공공임대·반값 분양 등 대안 모델 직접 제안 다수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약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사는 곳도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게 이게 최선일까요." — 강동구 40대 여성 자영업·소상공인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제도를 백지화해 주세요. 찬성률 75%면 반대하던 25%는 집을 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조합 승인 후에는 입주권 승계가 안 되므로 팔고 이사도 못 갑니다." — 서대문구 5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

"부동산 거품이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입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출퇴근과 삶의 보금자리 본연의 목적으로 구매 수요가 발생 가능한 집값이 되도록 해주세요." — 중구 50대 남성 직장인

5-2 **안전·치안**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성범죄 두려움·귀갓길 불안 등 서울 거주 여성들의 일상화된 공포와 생활 곳곳의 안전문제까지 토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 불신, 성매매 업소와 유흥시설의 학교·주거지 인접 노출,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경찰 초동 대응 부재, 귀갓길 안전 인프라 예산 삭감으로 체감 불안 증가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2030대 여성 응답자를 중심으로 젠더화된 안전 문제 제기가 집중적인 동시에, 그외 집단에서 보이스피싱·재난·공사안전·반려동물 관리 등 생활안전 문제도 함께 표출되었다. 전반적으로 ‘공포’, ‘불안’, ‘위협’ 등의 감정언어가 두드러졌다.

5-2-1. 분석 개요

안전·치안은 집값·월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불편사항으로, 특히 응답자의 96.1%가 여성이며, 20대 이하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타 불편사항에 비해 학생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여성 응답자를 중심으로 성범죄·성매매·스토킹 등 젠더 폭력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외에도 보이스피싱·재난·교통 등 일반 안전에 대한 불편도 지적되었다.

5-2-2. 주요 감정언어 분석

안전·치안 불편사항에는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공포’, ‘불안’, ‘위협’, ‘위협’ 등 감정언어가 두드러졌다. 감정 언어를 쓰지 않은 응답도 대체로 공포를 배경으로 한 응답이 많았다.

일상화된 공포 – 시민 목소리

"제 전화번호 즐겨찾기에는 11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제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너무 무서워 바로 누를 수 있게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 성북구 10대이하 여성

"혼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두운 길을 지나 집으로 들어올 때 무섭습니다. 112 번호를 입력해 두고 불안에 떨며 귀가합니다."

— 성북구 20대 여성

"여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스토킹당하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 관악구 20대 여성

"공공시설 여자화장실 안전 강화 요청합니다. 혹시 물카가 있진 않을까 싶어 매번 눈으로 스캔 후 사용합니다."

— 성동구 40대 여성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전화 때문에 매우 불안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까지 겪어보니 아직도 식은땀이 납니다."

— 송파구 50대 남성

"며칠 전 불이 나서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송파구 50대 여성

5-2-3. 주제별 분석

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처벌 강화 요구(형량·사법 구조)와 딥페이크·불법촬영에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초범·심신미약 감형 등 사법 구조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졌다. 사법기관 이외의 학교, 공공기관 등의 개선이나 시정도 요구되었다.

| | |
|---------------|---|
| 사법 불신이 공포의 원인 | 처벌받지 않는다는 절망 → 예방도 없다는 무력감, 비동의강간죄 미도입 지목 |
|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피해자 있어도 학교 묵인·방치 — 10대이하 집중 호소 |
| 공중화장실 몰카 | 화장실 갈 때마다 눈으로 스캔 — 구체적 행동 변화 서술 |
| 여성 혐오 발언 일상화 | 남학생 사이 혐오 발언 당연시 — 교육 개입 요구 |

"범죄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처벌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여성 표적 범죄, 동물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제대로 된 처벌을." — 서초구 10대이하 여성

"제발 범죄자들 형량 좀 그들이 한 행동에 맞게 내주세요. 나이 어려서, 나이 많아서, 아파서, 술 먹어서 등 말갈지도 않은 이유로 감형해주지 마시고요." — 구로구 20대 여성

"친구가 딥페이크 피해자인데 학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 조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노원구 10대이하 여성

② 성매매 단속과 규제

성매매 집결지·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학교·학원 인근의 성매매 업소나 광고, 간판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서울역·용산역·강남·성북 인근이 반복 지목되었다.

| | |
|--------------|---|
| 학교·학원 인근 노출 | 귀갓길에 성매매 업소 광고·간판 노출 — 10대이하 집중, "카페보다 많은 게 업소" |
| 역 인근 집결지 | 서울역·용산역 주변, "길 하나 건너편에 위험지대" — 직접 지목 |
| 도시 경관 훼손 | "도시 경관 망치는 1순위", "으스스한 거리 철거 바람" |
| 철거·근절 로드맵 요구 | 단속 강화를 넘어 거점 철거 일정 공표 요구 |

"성매매업소가 있는 거리를 미리 찾아보고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강남구 10대이하 여성

"성매매 업소가 너무 많아요. 서울역 쪽에 주르륵 늘어선 성매매업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용산구 20대 여성

③ 친밀한 관계의 폭력 — 예방·피해자 보호

"미아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불신도 지적되었다. 교제폭력 통계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 | |
|-------------|--|
| 경찰 초동 대응 불신 |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치 불가" — 예방적 개입 체계 부재 |
| 교제폭력 통계화 | 서울시 차원 실태조사 및 연간 발표, 피해자 신변보호 체계 |
| 출소 후 피해자 보호 | 보복 범죄 예방, 가해자 출소 정보 피해자 통지 체계 |

"미아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살해, 여성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 도봉구 20대 여성

"스토킹 등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안 하시나요? 경찰을 불러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성동구 20대 여성

"교제폭력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성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강동구 암사2동 20대 여성

④ 생활안전 인프라 — 귀갓길·공공장소

귀갓길 안전 점검, 골목 가로등 점검, CCTV 설치, 공중화장실 점검 등 비교적 서울시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직후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지목되었다.

| | |
|-------------|--|
| 여성안심귀갓길 복원 | 예산 삭감 → 사건 발생 직접 연결. "관악구 표시 많이 사라진 이후 더 불안" |
| 골목 가로등·CCTV | 성북·관악·강동 빌라 밀집지역 집중. CCTV 사각 지대를 이용한 범죄 지목 |
| 공중화장실 점검 | 몰카 점검 의무화, 구멍·틈새 보수 |
| 이름뿐인 안심길 비판 | 형식적 지정에 그친 귀갓길 실질 개선 요구 |

"제 전화번호 즐겨찾기에는 11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귀갓길을 만들어주세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을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의 장소가 된다는 건 이상합니다." — 성북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여성으로서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했음. 특히 관악구의 경우 여성 안심 귀갓길 표시가 많이 사라진 이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 관악구 20대 여성 학생

"성동구는 골목골목 CCTV·가로등 설치가 많은데 동대문구는 골목도 큰 도로도 CCTV·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마음이 놓이지 않음. 성동구처럼 세밀하게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동대문구 5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④ 생활안전 인프라 — 귀갓길·공공장소

젠더 의제 외에도 보이스피싱·통신사기, 화재·재난, 공사장 안전, 반려동물 관리 소홀, 불법주차 보행 위협, 따릉이 인도 점거 등 일반 생활안전에 대한 불편이 이 파트에 함께 포함되었다. 50대 이상 남성 응답자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집중 등장하며, 인구밀집 도시로서 재난 대응 체계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타났다. 이는 '안전·치안'이라는 의제가 젠더 폭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연령·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안전 위협을 체감하는 다층적 응답이 나타났다.

| | |
|-------------|---|
| 보이스피싱·통신사기 | 부모 피해 경험, 모르는 전화 수신 기피 일상화 — 50대 남성 집중 |
| 화재·재난 대응 | 화재 후 이주 대기, 판자촌 방치, 인구밀집 도시 재난 대응 체계 미흡 지적 |
| 공사장 안전·생활안전 | 발파 소음·진동, 불법주차 보행 위협, 따릉이 인도 점거 — 40~50대 집중 |
| 반려동물 관리 소홀 | 무개념 견주, 입마개 미착용, 공동주택 장시간 짚음 — 일반 생활 민폐 맥락 |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십니다.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안 받으시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 서대문구 50대 남성 직장인

"며칠 전 불이 나서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송파구 50대 여성

"인구밀집도가 많은 만큼 재난대응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마포구 50대 남성 직장인

"좁은 인도에 보행자와 따릉이가 같이 다니니 너무 위험합니다. 따릉이 주차장이 있는 인도는 따릉이로 인해 차도로 넘어 다녀야합니다." — 강서구 50대 여성 자영업·소상공인

5-3 **출퇴근·교통**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서울 출퇴근 생존경쟁, 지옥철·교통오지·도로 정체·이동권 배제 등 이동의 어려움 토로**

압사를 우려할 수준의 대중교통 혼잡, 서울 안에서도 경기도 수준의 교통 소외를 겪는 낙후 지역, 올림픽대로·서부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복지콜 만성 부족으로 이동조차 어려운 교통약자, 주말마다 개최되는 마라톤·집회·공사 통제 등으로 거주민 이동 제약 등 이동의 모든 측면에서 시민들의 고통이 분출되었다. 은평 진관동·구로 고척동·용산 원효로 2동 등 특정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 집단 청원도 제기되었다.

5-3-1. 분석 개요

출퇴근·교통 응답 중 성별은 균형적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주로 30~40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생활유형 중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동하는 직장인들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타 불편사항에 비해 직장인 비중이 유독 집중된 의제였다. 응답에는 특정 노선, 지역,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밀도 없는 서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10대 학생부터 70대 은퇴층까지 전 세대의 이동 불편을 살피볼 수 있다. 특히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의 신구로선 고척역 신설 요구가 106건으로 해당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집단 청원을 형성하였다.

5-3-2. 주제별 분석

① **대중교통 과밀·혼잡 — 지옥철, 지옥버스의 일상화**

대중교통 과밀과 혼잡 문제가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지옥철', '지옥버스'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었으며, 압사·기절·사고 위험 수준의 혼잡도가 반복적으로 서술되었다. 2호선, 9호선, 4호선, 5호선, 8호선, 1호선이 구체적 노선으로 반복 지목되었고, '배차를 늘리면 파업하고, 자차 이용 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숨도 못 쉬겠다'는 구조적 모순도 직접 지적되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급행 신설·배차 간격 단축이 가장 많이 요구된 정책으로 나타났다.

| | |
|--------------|---|
| 출퇴근 압사·기절 위험 | 매달 기절하는 사람 목격, 이태원 사고 언급하며 증차 절박 호소 — 30~40대 직장인 |
| 지하철 배차 만성 부족 | 2·9·4·5·8호선 반복 지목, "몇 대를 보내야 탈 수 있어요" — 학생·직장인 공통 |
| 버스 배차·혼잡 | 아침 버스 몇 대 보내야 탑승, 마을버스 환승 불편 — 서대문·영등포 집중 |
| 구조적 모순 지적 | "대중교통 타라고 하면서 증차는 안 하고" — 철도파업·혼잡 동시 방치 비판 |

"출퇴근시간 엄청난 혼잡도. 출근시 기절한 여성을 보는 게 매달 발생합니다." — 송파구 50대 여성 직장인

"2호선 퇴근 출근 서울시장인지 뭔지 한 번만 타보세요. 사람 끼여 죽습니다. 배차를 늘리면 철도공사 파업하고 파업하는 것에 나몰라라 하고, 자차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숨은 쉬면서 지하철은 타야 되잖아요." — 관악구 30대 여성 직장인

"출퇴근시간 지하철 증차!!!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사람 죽어요." — 서대문구 2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4호선도 9호선처럼 급행을 신설해주시거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을 위해 증차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작구 20대 남성 학생

② 교통 소외지역 인프라 부재 — 서울 안의 교통 낙후

서울 내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파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로 고척동의 신구로선 고척역 신설 요구로, 106건이라는 압도적인 집단 청원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주택 공급 급증으로 거주 및 출퇴근 인구가 빠르게 늘었음에도 버스 배차와 지하철 접근성이 극히 낮은 현실이 반복 서술되었다. 그 외 은평 진관동·고양신사선 미확정(3건), 용산 원효로2동 지하철 전무(8건), 양천 목동선(2건), 관악 난곡선(4건) 등도 당사자들의 직접 청원 형태로 제기되었다.

| | |
|----------------------|--|
| 구로 고척동 신구로선 (106건) | 주택 공급 급증에도 지하철·버스 접근성 최하 — 이 파트 최대 집단 청원 |
| 용산 원효로2동 지하철 전무 (8건) | 서울 중심부인데 지하철 無 — 신림선 연장 또는 신설역 강력 요구 |
| 관악 난곡선·은평 진관동 등 | 난곡선(4건), 진관동·고양신사선(3건) — 당사자 직접 호소 |

| | |
|--------------|--|
| 선거철 공약 반복 불신 | "면목선 공약만 반복", "행동으로 진행할 실전형 시장 필요" — 행정 불신 |
|--------------|--|

"서울이여도 노원·강북·도봉은 경기도에 사는 거 같아서. 노도강 주민들도 서울에 산다는 느낌이었으면."

— 강북구 30대 남성 직장인

"고척1동은 최근 주택 공급 증가로 거주 및 출퇴근 인구가 빠르게 늘어 교통 혼잡이 심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 단축과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만큼 신구로선 고척역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버스배차 간격 축소를 부탁드립니다." — 구로구 30대 여성 직장인

"교통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불평등을 해소해주세요. 선거철마다 면목선을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인들의 입발림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실전형 시장이 필요합니다." — 동대문구 40대

남성 직장인

"원효로 2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성인들을 위해 원효대교 근처에 지하철 역이 신설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 용산구 30대 여성 직장인

③ 도로 교통체증 — 삶의 시간을 잠식하는 정체

자차 출퇴근 응답자를 중심으로 '10km 가는데 대전 가는 시간', '출퇴근 각각 1시간 30분', '도로에서 수명 단축될 것 같다'는 체감이 반복적으로 서술되었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강남 내부도로·서부간선도로·통일로 등이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직접 지목되었다. 꼬리물기·끼어들기·신호 위반 등 운전 문화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잠실 MICE 개발 이후 백제고분로 교통 대란 우려가 8건의 응답으로 집중 제기되었다.

| | |
|-------------------------|---|
| 상습 정체 구간 직접 지목 | 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통일로·강남 내부 — 출퇴근 2~3시간 소요 |
| MICE 개발 후 교통 대란 우려 (8건) | 백제고분로 현재도 지옥, MICE 후 더 악화 — 잠실 주민 집단 청원 |
| 신호체계·도로구조 비효율 | 불필요한 신호등 과다, 구간단속 남발, 꼬리물기 구조적 방치 |
| 도로공사 시간·방식 문제 | 출퇴근 시간대 공사, 예산 소진용 반복 공사 의혹 — 조사 요구 |

"10킬로 가는데 대전까지 가는 시간 소요될 때 겁나 짜증남." — 서초구 5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

"출근하다가 도로에 갇혀서 수명 단축될 것 같아요. 제2 통일로 만들어주세요. 경기도에 신도시가 계속 생기는데 도로는 그대로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막힐지 무섭습니다." — 은평구 20대 여성 직장인

"MICE 지하주차장에서 올림픽대로 직결하는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합니다. 백제고분로 램프만으로는 도저히 교통량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 송파구 50대 남성 직장인

"출퇴근 길 꼬리물기, 신호위반 차들로 병목현상. 앞으로 공사를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소진을 위해 일부러 하는 도로공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 성동구 5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④ 교통약자·이동권 취약 — 배제된 이동권

시각·발달·지체장애인, 어린이 동반 양육자,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구체적 경험과 함께 서술되었다. 시각장애인 전담 영상통화 보조 에이전트 시스템 제안, 복지콜·나비콜의 만성적 차량 부족, 저상버스 확대 미흡,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잦은 고장 등이 지적되었다. '아이와 지하철 탑승했다는 이유로 공개 비난 받았다'는 사례처럼 과밀 혼잡이 교통약자 배제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었다.

| | |
|--------------------|---|
|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 시스템 부재 | 스마트 안경·영상통화 AI 에이전트 제안, 복지콜·나비콜 매칭 만성 지연 (1건) |
| 어린이 동반 대중교통 배제 | 혼잡으로 사실상 탑승 불가, "택시 타라"는 공개 비난 경험 직접 서술 |
| 장애인 이동권 시위 구조적 원인 | 기습시위 유발 원인이 정책 공백 —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시민으로 해결 요구 |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고장 | 잦은 고장으로 출입구 폐쇄, 노약자·장애인 직접 피해 — 유지보수 체계 요구 |

"시각장애인 근로자로서 일상의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스마트 안경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여 전문 AI 에이전트에게 실시간 도움 요청하고 물건 찾기, 이동안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은평구 40대 남성 직장인

"미취학 자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출퇴근 시간 버스와 지하철의 극심한 혼잡으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애 있으면 택시 타라'는 공개적인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 성북구

30대 여성 직장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하여 신속하게 협의하고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이고 비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줄 줄 아는 분이 서울시장이면 좋겠습니다." — 종로구 50대

여성 직장인

"시각장애인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복지콜과 나비콜을 미리 호출해두고 잡히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 영등포구 30대 여성 직장인

⑤ 이벤트·집회·공사로 인한 교통통제 — 거주민의 일상 침해

광화문 주말 집회, 도심 마라톤, 잠실 MICE 공사, 각종 스포츠 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가 종로·중구·송파 거주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거주민은 필요 없고 이벤트만 한다', '우회로조차 없이 막는다'는 도시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특히 집회 등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대책만이라도 마련해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나타났다.

| | |
|-------------------|---|
| 광화문 주말 집회 통제 | 매주 집회로 종로구민 교통 지옥, 우회로 없어 버스마저 오도 가도 못함 |
| 도심 마라톤 반복 통제 | "주말마다 런닝이라고 해댐", 우회로 없고 매너도 없는 이벤트 강행 — 중구·서초 |
| MICE·스포츠 공사 교통 대란 | 잠실 백제고분로 현재도 지옥인데 MICE 후 대형트럭 출입구까지 주민 공청회 요구 |
| 이벤트 행정 비판 | "거주하는 시민은 필요 없고 시 돈만 벌면 다인가요" — 이벤트 중심 도시 운영 비판 |

"집회해서 통제, 마라톤한다고 통제. 안 그래도 막히고 지하철도 멀리 있는데 나가는 길부터 막아버리니까. 통제하더라도 대중교통 대책은 마련해주세요." — 종로구 3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마라톤을 주말마다 도심에서 하는데 심각합니다. 마라톤을 도심이 아닌 변두리 공기 좋고 달리기 좋은 데서 하게해주세요." — 성동구 40대 여성 주부·육아·돌봄

"광화문에서 시위나 마라톤, 행사 등이 매주 일어나는데 종로구민의 교통 체증에 대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자하문 터널부터 광화문까지 교통 관리를 제대로해주세요." — 종로구 20대 여성 학생

"잠실 마이스단지 관련 공사를 즉각 멈추고 근접한 주민들 의견 반영하여 공사 진행하기 바랍니다." — 송파구 70대이상 여성 주부·육아·돌봄

5-4 **물가·생활비**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월급 빼고 다 올라요” - 밥값·월세·관리비·사교육비까지, 생활 전방위에서 조여드는 물가압박
 물가·생활비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계속 오른다’는 부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금·물가 격차에 대한 구조적 절망이 나타난다. 외식비·식재료·배달비 등 식비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자영업·소상공인의 경기 악화와 원가 상승 압박, 주부·돌봄층의 장바구니 부담 가중, 청년층의 자취 식비 부족과 생필품 부담 등이 언급되었다.

5-4-1. 분석 개요

물가·생활비는 비교적 성별과 연령이 균형적으로 나타나 젠더·세대를 가로지르는 공통의제로 도출되었다. 생활유형 중에는 직장인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타 불편항목과 비교하여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을 둘 다 담당하는 직장인 그룹과, 소비자이자 사업자로서 물가를 체감하는 자영업·소상공인 집단이 물가·생활비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가장 두드러지게 느끼고 있었다.

5-4-2. 주제별 분석

① 식비 — 외식비·장바구니·식재료

식비에 대한 불편사항은 여성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식재료·과일·채소 등 장바구니를 직접 채우는 주부·돌봄층의 응답이 두드러졌다. 밥값·외식비 부담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취 식비 부족에 대한 토로가 이뤄졌다.

| | |
|------------------|--|
| 밥값·외식비 급등 | 한 끼 1만~1.5만원, 외식 2번 할 것을 아예 못함 — 전 연령 공통 |
| 장바구니 공포 | 식재료·과일·채소 고가, 배달비 상승 — 주부·돌봄층 집중 |
| 자취생 식비 직격 | 굵는다, 하루 한 끼, 알바해도 부족 — 20대 여성 학생 가장 강렬 |

"마트 가면 물건들이 너무 비싸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밥 한 끼, 물 한 번 사 먹는 것도 고민합니다." —

강동구 20대 여성 학생

"물가가 너무 올라 외식도 꺼려지고 마트에 가도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코너부터 먼저 가게 됩니다." — 강동구

3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외국처럼 기본 식재료 농산물이 적절한 도소매마진, 적합한 소비자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공정유통 시스템 및 경쟁 체제를 도입해주세요." — 송파구 60대 여성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대학생인데 한 끼 한 끼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굶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알바 여러 개 뛰면서도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주세요." — 은평구 20대 여성 학생

② 임금·소득 격차 — 생활비 대비 임금 정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3~50대 직장인 응답자가 높았고, 구직자와 은퇴층에서도 일부 소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 | |
|----------------|--|
| 임금-물가 격차 직접 언급 |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비싸짐 — 30~50대 직장인 집중 |
| 중간층 복지 공백 | 청년·노년 제도는 있지만 중간층 복지 없다, 기준치 하나 넘으면 탈락 |
| 공공근로 생활임금 요구 | 공공근로 생활임금 적용 요구 |

"숨만 쉬어도 200만원 나감. 외식은 꿈도 못 꿈." — 강서구 30대 여성 직장인

"죽어라 일만 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배경이 없는 사람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꿈을 꾸는 서울을 만들어 주세요." — 마포구 30대 여성 직장인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도시임에도 2026년 생활임금이 시급 12,12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1위 광주는 13,303원으로 서울보다 시간당 1,182원 더 높습니다."

— 강동구 30대 남성 직장인

"임금대비 물가상승률이 높아 한정된 생활비에 부족함. 40~50대 혜택 확대 요청." — 도봉구 4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③ 생활 고정비 — 월세·관리비·공과금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고정 지출의 상승이 지적되었다.

| | |
|-----------|---------------------------------------|
| 월세·임대료 연쇄 | 월세 ↑ → 동네물가 ↑ → 식비 ↑ 연쇄 구조를 시민이 직접 서술 |
| 아파트 관리비 | 관리비 인상 기준 불명확,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체감 |
| 공과금·전기·가스 | 전기세·가스비·수도세 상승 — 60대 주부·돌봄층 집중 |

"기본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관리비부터 생필품, 식품 물가가 너무 높아진 데 비해 월급의 상승폭은 거의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고액연봉자 사이의 서민은 혜택도 없고 살기 힘들다." — 노원구 40대 여성 주부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자동으로 서울 물가도 상승하는 거 같아요. 월세 메꾸려고 음식이나 카페, 심지어 잡화점마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 구로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④ 자영업·소상공인 원가 압박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기 악화와 원가 상승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송파구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시장 역시 임대료가 높다고 지적되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짚는 응답도 있었다.

| | |
|---------------|---------------------------------------|
| 경기 악화 + 과당 경쟁 | 경기 안 좋고 같은 업종 호객행위 심화 — 행정적 단호한 제재 요구 |
| 가락시장 임대료 | 공영시장 임대료 과중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직접 요구 |

"가락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요. 가락시장 상인을 위해 힘써주세요." — 송파구 50대 남성 자영업

"자영업인데 원가는 너무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고. 너무 힘드네요." — 성동구 50대 여성 자영업

⑤

교육비·생필품 등 기타

자녀를 키우는 4~50대를 중심으로 교육비·학원비에 대한 부담이 토로되었고, 10~20대의 경우 생리대 등 생필품 부담에 대한 응답이 집중되어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대학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언급되었다.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며, 졸업할 때 빚을 지고 나오는 학생들이 대다수" —

관악구 20대 남성 직장인

"사교육비 등 학원비가 제일 문제고 물가도 비쌌" — 성북구 40대 여성 자영업

"생리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마포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5-5 녹지·환경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숨 쉬기 힘든 도시, 쾌적할 권리 요구로 이어져**

녹지·환경은 녹지·공원 부족과 콘크리트 열섬 문제, 하수 악취와 길거리 흡연·담배꽂초, 쓰레기통 부족 등 일상 생활 오염 문제 등이 주를 이뤘다.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응답도 일부 확인되었다. 그외에도 도봉산 방치·난개발 문제나 강동구 고덕동 라돈 지하철 집수정 설치 반대 등 특정 지역 중심의 민원도 나타났다.

5-5-1. 분석 개요

녹지·환경은 성별은 유사하지만, 연령대에선 40대가 최다를 차지했다. 자치구 분포에서는 도봉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봉산 일대 방치와 난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 집단 청원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강동구에서도 고덕동 라돈 집수정 문제와 관련하여 집단 응답이 나타났다. 주로 언급된 내용은 녹지 부족, 하수 악취, 난개발, 길거리 흡연 등이었다. 개발 논리에 밀린 서울의 자연 자산을 제대로 관리해달라는 요구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여러 응답에 걸쳐 제기되었다.

5-5-2. 주제별 분석

① 녹지·공원 부족과 도시 열섬 – "숨 쉬고 싶 공간이 없다"

서울 전역에서 생활권 내 녹지·공원의 절대적 부족이 호소되었다. 한강공원·서울숲처럼 '마음 먹어야 가는 곳'이 아닌, 걸어서 10분 거리의 일상 쉼터가 부재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구로·금천·영등포·동대문 등 서남·동북권 저소득 주거 밀집 지역에서 녹지 접근성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었다. 가로수 무분별 가지치기, 인공정원·팝업 행사용 화단 등 '전시용 조경'에 대한 비판도 다수 등장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녹지를 축소하는 구조에 대한 분노도 반복되었다.

| | |
|---------------------|--|
| 생활권 쉼터 절대 부족 | "동네 앞 공원 없어 한참 가야", 구로·금천·영등포·역삼 등 녹지 극빈 지역 다수 지목 |
| 가로수 무분별 가지치기 | "이쑤시개처럼 만들어버리는 조경", 전문가 없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그늘 소멸 – 열섬 직결 |

| | |
|-------------|---|
| 전시용 인공정원 비판 | "한 달도 못 가는 인공정원", 팝업 박람회용 화단 조성 후 방치 — 세금 낭비 비판 |
| 재개발 시 녹지 삭감 | 재건축·재개발 과정서 오래된 나무 무단 벌채, 아파트 늘고 숲은 사라진다 |

"자연스런 녹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달도 못 가는 인공정원을 만든다. 관리 안 해서 1주일 만에 시드는 꽃밭 보고 싶지 않다. 나무 많이 심어라. 기존에 자라던 풀들, 작은 꽃들 그대로도 아름답다." — 서초구 40대 여성 직장인

"가지치기를 핑계로 가로수를 전봇대처럼 이쑤시개처럼 만들어버리는 조경관리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해가 가능한 가지치기 수목관리를 해 주세요." — 마포구 40대 남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영등포구는 공원이 부족하고 열섬 효과가 심하고 일상생활에서 걷기 좋은 길이 부족해요. 작심해서 큰 공원까지 가거나 돈을 내고 운동하러 가야 해요." — 영등포구 40대 여성 직장인

"서울의 녹지 환경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녹지 시설이 부족한 곳에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불균형적인 녹지 공간을 재구성했으면 합니다." — 성북구 20대 남성 학생

② 일상 생활환경 오염 — 하수 악취·길거리 흡연·쓰레기

녹지 부족과 함께 일상 생활환경 오염이 이 파트의 양대 핵심 불편으로 나타났다. 하수구 악취는 서울 전역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특히 여름·흐린 날 맨홀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하게 할 수준이라는 서술이 다수였다. 길거리 흡연과 담배꽂초 무단투기도 매우 광범위하게 지적되었고, 쓰레기통 부족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악순환도 함께 제기되었다. '서울이 선진국 수도라는 게 믿기지 않는 위생 수준'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여러 응답에 등장했다.

| | |
|---------------|--|
| 하수 악취 만성화 | 맨홀·하수구에서 여름철 베란다까지 올라오는 악취, 근본 대책 없는 땀질 행정 비판 |
| 길거리 흡연·담배꽂초 | 금연구역 무시 흡연, 좁은 인도 데일 뻘한 경험 서술 — 흡연부스 확충과 단속 강화 동시 요구 |
| 쓰레기통 부족·거리 불결 | "지방보다 쓰레기통 적다", 쓰레기 들고 집까지 가야 하는 불편 — 외국인 관광 이미지 우려 |
| 도시 미관 무질서 | 정치현수막 남발, 전선 난립, 조악한 조형물 — "개도국 수준" 표현 다수 |

"서울 전체적으로 하수구 냄새가 심해요. 해외 관광객들이나 지방 사람들은 서울 하수구 냄새 잘 느끼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진 것 같고 상하수도 관리 부족한 것 같아요." — 성동구 20대 여성 학생

"한 번 외출하면 적어도 세 명은 길거리 흡연자를 마주쳐요. 손 올렸다 내렸다 하며 피우니 좁은 인도에선 데일 뻘한 적도 있어요." — 중랑구 20대 여성 학생

"쓰레기는 많은데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길거리에 쓰레기통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지방보다 쓰레기통이 적네요." — 중랑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솔직히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이라고들 하는데 수도권 서울 위생상태나 도시미관은 개도국 수준입니다. 쓰레기통이나 미화인력 확대,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가로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 용산구 30대 남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③ 도봉산 방치·난개발 — "천혜의 자산을 쓰레기장으로 두다" (도봉구 집단 청원)

도봉구에서 57건(전체 녹지·환경 응답의 21.0%)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이 파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도봉산 일대 그린벨트 구역의 무단 폐기물 방치, 폐차 방치, 쓰레기더미, 관리되지 않은 철조망과 담장, 국립공원 입구까지 난립한 혐오시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주민들은 "이탈리아 돌로미티처럼", "알프스 마을처럼"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자산이 있음에도 방치와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서술했다. 서울숲과 같은 정비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며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 | |
|-----------------|---|
| 그린벨트 폐기물·불법 투기 | 산 입구 쓰레기더미, 폐차·폐자재 방치, 철조망 난립 — 도봉구 주민 다수 직접 서술 |
| 난개발로 산 경관 훼손 | 아파트·건재상·쓰레기처리장이 도봉산과 공존, 서울 진입로 첫 인상 훼손 |
| 국립공원 인프라 부재 | 등산로 외 모든 공간 철조망 차단, 산자락 공원화 전무 — 스위스·돌로미티 비교 |
| 장기 방치에 대한 행정 불신 | "구청이 신경 안 씀", "수십 년째 방치" — 서울숲 같은 정비사업 모델 요구 |

"도봉산 입구마다 방치된 쓰레기. 불법 폐기물들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곳에 숲과 공원을 만들어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자연녹지를 보고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 도봉구

40대 여성 직장인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산을 품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큰 그림을 갖고 잘 가꾼다면 도심에서 알프스(돌로미티)나 로키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 도봉구

60대 남성 직장인

"도봉산은 서울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임에도 무분별한 난개발, 관리되지 않는 인근 경관들을 보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 도봉구 4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국립공원 주변 그린벨트가 제멋대로 그어 놓은 경계와 난립한 담장 때문에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철판, 철책, 벽돌 구조물은 줄이고, 보존은 단순한 묶어두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와 질서 있는 정비에서 시작합니다." — 도봉구 40대 남성 직장인

④ 환경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 대응 요구

서울시가 수십억 공사비 증액을 핑계로 위치 변경 요구를 묵살한 반면 광화문 광장 조형물에는 200억을 썼다는 비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강한 분노가 표출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정책 강화, 난개발 중단 등 보다 거시적인 환경 정책 요구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또한 강동구 고덕동 광문고 사거리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쌓이는 지하철 집수정 설치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 제기되었다.

| | |
|--------------------|---|
| 기후위기 대응 정책 촉구 |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목표 설정, 원전 의존 탈피 — 20~30대 여성 집중 |
| 에너지·폐기물 자립 요구 | 서울 소비 전력 지방 전가 구조 비판, 일 가구 일 태양광, 재활용률 50% 요구 |
| 강동구 라돈 집수정 설치 반대 | 학교앞 1급 발암물질 집수정 설치 강행, 주민 2,000명 서명 묵살 — 집단 조직 청원 |
| GTX-B 학교 인접 환기구 공사 | 구로구 초등학교 바로 옆 GTX 환기구 공사, 발파·먼지·소음 피해 — 대안지 요구 |

"학교 앞 주택가 서울 강동구 광문고 사거리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쌓이는 지하철 집수정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이천여 명이 서명 운동을 통해 집수정 위치 변경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고작 수십억 공사비 증액을 핑계로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돌무더기 쌓으려고 이백억 예산을 썼습니다." — 강동구 30대 여성 직장인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서 더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산업보다 기후의제가 일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 노원구 20대 여성 학생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정작 발전소는 지역에다 짓는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공공이 앞장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 강동구 30대 여성 직장인

5-6

일자리·노동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청년 취업 절벽부터 공공노동 후퇴까지, 일자리 위기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나타나

일자리·노동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중장년의 정년·연금 공백,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의 일상화된 불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배제, 공공노동 인프라의 조직적 해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포착되었다. 세대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다양한 불편사항이 접수되었다.

5-6-1. 분석 개요

일자리·노동은 성별은 비교적 균형있게 분포되었고, 연령대는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중고령층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며, 청년층(20~30대, 36.4%)과 함께 일자리 의제에 대한 불편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유형은 직장인(41.1%)이 가장 많았지만, 타 불편항목 대비 자영업·소상공인(13.4%)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12.6%)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 정규직 고용관계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포착되었다. 은퇴·노년층(6.1%)도 의미있게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노동 문제가 은퇴층까지 폭넓게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의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6-2. 주제별 분석

①

청년 구직난과 채용 구조의 모순

20~30대 청년 응답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채용 공고 감소, 계약직·파견직 위주의 채용 구조, 내정자 의혹 면접, 여성 차별 채용 등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복합적인 장벽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일자리 부족을 넘어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두드러졌으며,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 투명화’, ‘대기업 정규직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도 제안되었다.

| | |
|------------------|---|
| 취업시장 경직 | 채용 공고 수 감소 실감,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으로만 채우는 기업 — 20대 학생·구직자 집중 |
| 내정자 채용 의혹 | 면접에 가면 이미 내정자 있어 1명 외 불채용, "거짓 공고" 의혹 제기 |
| 여성 차별 채용 | 건설업계 등 여전히 남성 채용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존재 등 |

| | |
|------------------|---|
| 채용 제도 불투명 | 채용연계형 인턴 불투명 운영, 인턴·경력 우대 신입 공고 모순 — 투명화 요구 |
|------------------|---|

"얼어붙다 못해 완전히 정지한 취업시장. 일손이 필요함에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개인에게 1인분 이상의 일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여러 명을 뽑는다고 안내하고 면접에 가면 내정자 혹은 1명 외에는 채용하지 않는 거짓 공고문." — 강동구 20대 여성 학생

"여자를 안 뽑아요. 같은 조건이면 무조건 남자가 뽑히고, 여자가 더 높은 스펙이어도 남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 관악구 30대 여성 학생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 투명화해주세요. 서울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개선제도를 만들어주시길." — 노원구 20대 여성 직장인

"인턴이나 신입 뽑는데 경력 우대라고 써놓고 경력직만 뽑잖아요." — 은평구 20대 여성 학생

② 고령·중장년의 노동 배제와 정년 이후 소득 공백

일자리·노동 불편사항 파트에 가장 다수 참여자로 나타난 50~60대는 조기 정년·연금 공백기·재취업 불가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정년 60세와 연금 개시(65세) 사이 소득 공백, 나이 차별 채용, 50대 ‘경력단절 여성’ 복지 사각지대, 은퇴 후 재취업 기회 부재, 시니어 일자리 절대 부족 등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
|------------------------|---|
| 정년-연금 공백기 | 만 60세 퇴직 → 만 64~65세 연금 개시 사이 소득 공백 — 50대 직장인 집중 호소 |
| 65세 이상 고용 완전 단절 | 일용직·노인 일자리조차 65세 이상에게 문 닫힘, 100세 시대 역설 — 60대 이상 |
| 중장년 재취업 불가 |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 없음, 청년·노년 정책만 있고 중간층 없다, 50대 여성 사무직 소멸, 중년 일자리 정책 공백 |

"정년 65세 너무 억울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65세 넘었다고 일용직도 안 써주고." — 강동구 60대 여성

"당장 내년 2월에 만 60세로 퇴직인데 아직은 연금도 안 나오고, 만 64세에 연금 개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고용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노원구 50대 여성 직장인

"저는 50대 경단녀입니다. 아이들 다 크고 시간이 많은데 젊은 경단녀나 60대 실버 일자리는 있으나 50대 여성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 성동구 50대 여성 주부·육아·돌봄

"청년만 보지 말고 중년 고충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노년 살기 좋은 나라이길." — 50대 남성 직장인

③ 열악한 노동조건·고용불안정·성차별

기간제·계약직·임기제 공무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 고용 형태 전반에 걸쳐 불안정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되었다. 포괄임금제로 야근 일상화, 기업이 필요 인원 대비 최소 채용 후 과중 업무 부과, 비정규직·계약직 반복(2년 후 정규직 전환 회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법적 보호 부재, 임금후려치기(플랫폼 알바), 성별 임금 격차·채용 성차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돌봄노동 급여 낙후, 버스·지하철 운송종사자 처우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출연기관 계약직, 서울시내버스 기사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문제가 직접 지목되었다.

| | |
|---------------|---|
| 기간제·계약직 과잉 | 양질의 일자리 대신 기간제 계약직만 증가, AI까지 일자리 위협 |
| 포괄임금제·야근 일상화 | 사무직 포괄임금제로 주말 노동 생활화, 식대조차 미지원, 한 사람에게 5인분 요구 |
| 공공부문 비정규직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15년 근속에도 폭언·고용 불안, 출연기관 노동권 침해 |
| 프리랜서 노동 보호 공백 | 2019년 이후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 소멸, 교육·문화 분야 일감 예산 삭감 직격 |

"사무직 포괄임금제로 야근 및 주말노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랑 계약하는 기업들부터라도 전수조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청인 공무원들부터가 밤 8시 9시에 업무메일을 보내요. 그들은 언제 퇴근합니까?" — 양천구 30대 여성 직장인

"업무량은 많은데 신입은 안 들어오고. 근데 내 친구들은 취준하고 있고... 아니 제발 인간을 뽑으라고 인건비 아낀다고 있는 사람 쥐어짜니까, 취업한 사람은 맨날 야근하고 건강 나빠지고 취업 못한 사람은 돈 못벌어서 굶어죽지요." — 영등포구 20대 여성 직장인

"당근 알바를 활용해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있는데, 구인자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플랫폼의 관리 소홀로 임금 후려치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인이 완료되기 전 구인글 공개 단계에서 대중들의 해당 구인글 평가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고, 업무 완료 후 평가 항목에 임금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대문구·연희동, 40대 남성

"서울에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와 노동 정책은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마포구,

40대 프리랜서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논의가 2018~19년 이루어졌으나 2020년 이후 서울시 행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에 정말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 마포구 4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④ 공공노동 인프라 후퇴와 노동권 복원 요구

오세훈 시정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공공돌봄 후퇴,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권 침해·인력 부족, TBS 지원조례 폐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기능 정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차별 대우, 다산콜센터 과중 업무 등이 반복적으로 지목되며 서울시 공공노동 인프라의 후퇴에 대한 복원 요구가 집중되었다.

| | |
|-----------------|--|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폐지 | 강동구 직영센터 완전 폐지, 서울시 지원 전액 중단 — 600만 서울 노동자 권리 박탈 |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 공공돌봄 복지 후퇴, 출연기관 노동권 침해, 다산콜센터 과중 업무 지속 |
| TBS 임금 미지급 | 지원조례 폐지로 1년 9개월 임금 미지급 — TBS 종사자 직접 호소 다수 |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기능 정지 | 구로구 애니메이션 종사자 집단 호소, 센터 재건립 소문에 불안감 |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 시정과 시민 복지를 위해 발맞춰 일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 오세훈 정부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지고, 공공돌봄 복지가 후퇴했습니다. 다산콜센터 업무는 과중 상태입니다. 출연기관 전반적으로 노동권이 침해받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 종로구 40대 남성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 지원은 아예 끊겼더군요. 제가 사는 강동구는 직영으로 운영하더니 아예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책임있게 600만 서울시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권리를 복원해주세요. 일하다 다치면 그게 산재라는 것을 알려준 곳입니다. 일터가 평등해야한다고 말하는 노동자를 옹호하는 기관을 복원해주세요." — 강동구 30대 여성

"현재 TBS에서 근무 중인데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졸속행정이었습니다.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었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민의방송으로서 좋은 콘텐츠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 마포구 30대 남성 직장인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재 기능을 못 하고 멈춰 있습니다. 문화정체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기능 복원이 필요합니다." — 구로구 50대 여성 직장인

⑤ 취약계층 일자리 배제 — 장애인·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경증장애인의 취업 기회 부재(동료상담가 사업 폐지), 경증장애인 일자리 없음, 50대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사각지대, 소상공인 일감 부족과 공공기관 비교견적 갑질, 자영업자 공공 경쟁 피해(서울형 키즈카페),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 | |
|-------------------|--|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폐지 | 2020~2022년 시행 후 폐지 — 당사자들이 직접 부활 요구, 조직적 집단 응답 |
| 발달장애인 일자리 부재 | 취업 전무, 동료상담가 3시간 근무 → 4시간 확대 요구 — 직접 당사자 서술 |
| 사회적경제 지원 완전 축소 | 5년간 지원 대폭 삭감, 취약계층 일자리·지역문제 해결 역량 붕괴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취업 연계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

성동구·마장동, 20대 남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급에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은데, 장애 등록은 안되고 일은 받아주지 않으니 서글프네요." — 중랑구·중화2동, 30대 여성

"저는 50대 경단녀입니다. 이제 아이들 다 크고 시간이 많은데 젊은 경단녀나 60대 실버 일자리는 있으나 50대 여성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키울 때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정말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 성동구·성수1가 1동, 50대 여성

"지난 수년간 대폭 축소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정상 복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영등포구 50대 여성 직장인

요약 서울 안의 인프라 불균형 해소 필요, 문화는 특권이 아닌 권리!

여가·문화·인프라는 자치구별 인프라 격차, 공약 파기와 공공시설 강제 폐쇄, 예술인의 생계 위기 등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지적되었다. 강서구 문화재단 부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변경, 잠실 수영장 폐쇄, 성동구치소 주민편의시설 예산 복원 촉구 등 구체적인 지역과 문제점도 언급되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문제제기 밀도가 높아 관련 종사자에게 특히 인프라 문제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1. 분석 개요

여가·문화·인프라는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스포츠·체육 인프라 요구가 다수 포착되었다. 생활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종사자로, 예술인·문화 종사자들이 이 파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서구 문화재단 부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원안 이행 요구, 성동구치소 주민편의시설 예산 복원 촉구, 잠실 수영장 폐쇄 반대 등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다중 응답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5-7-2. 주제별 분석

①

지역별 문화·여가 인프라 불균형, 일상 여가·공유 공간 부족, 스포츠·체육 인프라 미비 — "우리 동네는 없다"

"시내권이나 강남권으로 가야만 한다", "주말에 굳이 다른 구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동네는 즐길 게 없다"는 표현이 도봉·강서·노원·구로·금천·중랑 등 서울 외곽과 서남권 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 부족(수영장·트랙·체육관), 생활 반경 내 공원·쉼터·공유공간 부재, 상업시설로만 채워진 여가 환경에 대한 비판이 구체적이다. 특히 강서구는 문화재단 자체가 부재하고 문화원 중심 카르텔이 예술인 진입을 막는다는 응답이 복수의 당사자에게서 동시에 제기되었다.

| | |
|--------------------------|---|
| 자치구 문화 인프라 격차 | 강서·도봉·노원·구로·중랑 등 문화시설 극빈 지역, 강남·마포·성동 편중 구조 비판 |
| 생활권 내 공유·쉼터 공간 부족 | "한강공원은 마음 먹어야 간다", 동네 앞 편한 공원·공유공간 부재 — 30~40대 집중 |
| 스포츠·체육 인프라 미비 | 수영장 대기 불가, 400m 트랙 부재, 체육관 부족 — 러닝·수영 인구 직접 서술 |

| | |
|------------------|--|
| 문화원 카르텔·공정 접근 차단 | 강서구 문화원 위탁 독점, 새 예술인 진입 불가 — 당사자 5명 이상 집단 응답 |
|------------------|--|

"노원구 문화생활 공간이 부족해요. 시내권이나 강남권으로 가야만 해요." — 노원구 5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

"어딜 가든 사람이 너무 많음. 일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쉼터가 많이 없음. 한강공원만 해도 '마음 먹어야' 갈 수 있음." — 성북구 40대 남성 직장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스러운 도시지만 강서구엔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도 큼니다. 강서구에 문화재단과 문화지구를 만들어주세요." — 강서구 30대 남성 구직자

"강서구 청년예술인은 활동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행정은 존재하지만 청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지원 자체도 접근 구조도 없습니다." — 강서구 2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성동구에 400m 트랙이 없어서 뭘 곳이 없어요. 한강에서 뛰면 보행자들이 싫어하고 한양대는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 성동구 30대 남성 직장인

② 공약 파기·공공시설 폐쇄·행정 불신

이 파트에는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집단 청원 형태로 집중되었다. 첫째,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변경 —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들이 '공약 믿고 투표했는데 여의도로 바뀌었다'며 원안 복원을 강력 요구했다. 둘째, 성동구치소 부지 원안 이행 — 송파구 가락2동 주민들이 '40년 기피시설 감내한 대가로 합의된 공공분양 1,050세대·주민편의시설 250억이 일방 파기됐다'고 호소했다. 셋째, 잠실종합운동장 수영장 폐쇄 — MICE 사업에 수영장이 매각될 위기라는 반대 청원이 제기되었다. 공통 주제는 '시민과 합의한 원안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신뢰 위기다.

| | |
|--------------------|---|
|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공약 파기 | 박원순 시정 원안(문래동) → 오세훈 시정 여의도 변경, 주민 배신감·원안 복원 요구 집단 응답 |
| 성동구치소 원안 이행 요구 | 40년 기피시설 감내 후 합의된 공공분양·편의시설 250억 구청장 일방 삭감 — 다수 집단 청원 |

| | |
|--------------------|---|
| 잠실 수영장 폐쇄 반대 | MICE 민간 사업에 공공 수영장 매각 위기 —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공시설을 잃지 않게" 요구 |
| 수색역·오목교 등 장기 방치 사업 | 20년 개발 공약만 반복, 코로나 이후 방치된 역사 문화공간 — 희망고문 비판 |

"문래동에 문화 인프라가 너무 없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구청장을 뽑았는데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문래동 주민 대상 공약사기입니다." —

영등포구 40대 여성 직장인

"기피시설 40년 안고 산 주민들이 양보한 원안!! 서울시 공공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 짓기로 주민분들과 이미 합의함. 주민편의시설 — 국힘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강제 삭감한 250억 돌려주세요." —

송파구 40대 남성 직장인

"잠실 종합운동장역 수영장이 MICE 민간 사업 쪽에 팔려 잃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공시설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 송파구 20대 여성

"수색역 개발이라는 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아젠다로 정치인들은 저마다 개발하겠다고 표를 받아가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그만하고 진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인지 듣고 싶어요." — 은평구 30대 남성 직장인

③ 예술인과 문화종사자 생태계 취약 — "문화로는 살 수 없다"

전업 예술인, 미술관 큐레이터, 만화가, 동화작가, 국악인, 연극인 등 다양한 문화 종사자들의 생존 문제가 집중되었다. "예술인이지만 예술로 살 수 없다",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미래를 설계할 여유조차 없다", "공모사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가 반복적으로 서술되었다. 소속 단체·협회가 없으면 공간 대관도 지원 신청도 불가능한 구조, 매번 같은 단체에만 돌아가는 지원금, 정산 의무로 인한 소액 사업 지속 불가 등 제도 설계의 구조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 | |
|-------------------|--|
| 기초예술 지원 부재와 생존 위기 | "예술인이지만 예술로 살 수 없다", 기초예술 예산 삭감 — 국악·연극·만화 종사자 집중 |
| 계약직·공모 의존 구조 | 큐레이터 대부분 계약직, 공모사업 외 소득 없어 미래 설계 불가 — 30~40대 여성 집중 |

| | |
|---------------------|--|
| 소속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 | 협회 미소속 예술인 공간 대관·지원 신청 완전 배제 — 강서구 등 다수 당사자 서술 |
| 지원금 쏠림·소액 무정산 제도 부재 | 매번 같은 단체에 지원금 편중, 소액 예술사업 정산 의무로 지속 불가 |

"미술관 큐레이터의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계약직은 많고 미래를 설계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반면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라며 얘기하지만 가닿지 않는 현실이 있는 만큼 진짜 문화로 문화 종사자가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해주세요." — 노원구 3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나 예술인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해 보여요. 대부분의 문화여가시설이 공간 중심이고 박물관, 공연장 같은 인프라라서 휴식공간이 적습니다. 도시공원과 같이 보편적인 문화공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 관악구 2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강서구에서 전시를 하거나 공간을 빌리려 해도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강서아트리움은 연초부터 구청과 문화원 예약이 차 있어 대관이 쉽지 않고, 그 외에 대관 가능한 미술관이나 전시장도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 예술가들은 작업을 해도 발표할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강서구 30대 남성 직장인

"현재 애니메이션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만화(웹툰) 전문 지원기관 운용이 시급합니다." — 마포구 50대 남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예술인으로서 점점 일할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지원사업 또한 매번 같은 단체나 개인에게 주지 말고 다양하게 사회초년생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에 기회를 주세요." — 서대문구 5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

5-8 육아·보육·돌봄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돌봄의 공백을 온몸으로 버티는 시민들, 돌봄 공급부족·사각지대·비용 불평등 지적**

육아·보육·돌봄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대기, 장애아동 전문 돌봄 인력 부재, 방학·야간 돌봄 공백,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차별 등 돌봄 공급의 절대적 부족이다. 동시에 발달장애·중증장애인 가족, 비혼모, 1인 가구, 다자녀 탈락 가구 등 제도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다양한 당사자의 언어로 지적되었다. 그외에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돌봄 인프라 격차, 젠더 편중된 돌봄 구조의 어려움,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제안 등 서울 돌봄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다각도로 지적되었다.

5-8-1. 분석 개요

육아·보육·돌봄은 전체 응답수는 적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등 밀도 높은 응답들이 다수 나타났다. 응답자는 여성이 약 70% 정도로 높았고, 연령대는 4~50대가 높았다. 생활유형은 직장인과 주부·육아·돌봄 응답자가 높았는데, 특히 다른 불편유형에 비해 주부·육아·돌봄 응답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8-2. 주제별 분석

① 돌봄 공급 부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대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족, 장애아동 전문 돌봄 인력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어린이집의 교사 비율 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강서구 화곡 1동, 관악구, 광진구 자양4동 등 구체적인 지역의 돌봄 공백도 지적되었다.

| | |
|---------------|-----------------------------------|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 명단 줄서기, 대기 — 공급 현실화 요구 |
| 장애아동 돌봄 시설·인력 | 지역 내 장애 돌봄시설 희소, 특수교사·사회복지사 배치 부족 |
| 어린이집 교사 비율 | 만 1세반 1:5 비율로는 돌봄 불가 — 1:3 현실화 요구 |

| | |
|-----------|---|
| 초등학교 무상보육 | 서울 돌봄 시초인 '초등 방과 후 어린이집' 사례 언급하며 초등학교 무상보육 주장 |
|-----------|---|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돌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당 돌보는 아이 비율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만 1세반의 경우 현재 비율 1:5로는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한 명이 아이 3명을 돌보는 1:3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 마포구 30대 남성 주부·육아·돌봄

"서울에 돌봄의 시초인 초등방과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아이들에게 무상보육 실현해 주세요. 차별 없는 서울의 보육 정책 부탁드립니다." — 동대문구 60대 여성 직장인

"5만 인구를 보유했으나 저층주거지인 화곡1동에 기본 복지관, 도서관, 쾌적한 주민센터 등 생활인프라가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 강서구 40대 여성 자영업·소상공인

"자양4동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성인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 아이와 책을 읽기 불편하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부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광진구 4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관악구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너무 없어요. 동작구에는 많은데, 관악구에도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제발~" — 관악구 20대 여성 직장인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학부모들은 명단에 줄 서서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유치원들은 원아 수 부족하다고 연이어 폐원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 30대 여성 직장인

② 돌봄 사각지대

발달장애·중증장애인 가족, 비혼모·성소수자·1인가구 등 제도 범위 내에 포괄되지 않거나 지원 제도가 부족한 돌봄 대상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 다자녀 제도 등의 대상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탈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 | |
|----------|---|
| 발달·중증장애인 | 치료비 미지원, 활동지원 삭감, 탈시설 후 가족 과부하, 복지 정상화 요구 |
| 노인 돌봄 사각 | 장기요양 미등급, 홀몸 노인 기준 탈락 — 노인 일자리·커뮤니티 요구 |
| 비혼모·성소수자 | 비혼모 혜택 확대, 동성부부 혼인·출생신고 수리 직접 요구 |

| | |
|-----------|----------------|
| 다자녀 제도 탈락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요구 |
|-----------|----------------|

"성인이 된 발달장애 아들 돌봄의 한계가 있음.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 있던 작은 복지도 없애지 마시고요." —

강남구 60대 여성 은퇴

"나를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혈연·혼인·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서로 돌볼 수 있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서대문구 · 30대 남성 · 직장인

"서울 중구에서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여덟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차량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 돼 생계와 주거 부담이 매우 큼니다. 다자녀 가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과 현실적인 주거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 중구 30대 여성 주부

"전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편찮으신 아빠 돌봄과 조카 돌봄이 저에게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맡은 역할 때문에 제 구직이 힘들어요." — 용산구 30대 여성 구직자

③ 돌봄 비용·접근성 불평등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차별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격차를 지적하며 비아파트 주민들의 돌봄과 육아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확대도 언급되었다.

| | |
|------------------|--|
| 방과 후 어린이집 보육료 차별 | 일반·국공립은 무상 — 방과후어린이집만 제외, 서울 고유 30년 시설 |
| 발달장애 치료비 미지원 | 바우처로 치료비 10%도 미충당, 진단 후 실비보험 적용 불가 |
| 아파트 vs 비아파트 격차 | 아파트 집중 인프라 → 비아파트 주민 돌봄·도서관 접근 불가 |

"서울에만 존재하는 30년 가까이 된 방과후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해주세요." — 동대문구 60대 여성 직장인

"아파트 위주로 육아돌봄, 도서관, 병원,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파트 외에 사는 시민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 되어버림." — 서대문구 40대 여성 주부

"발달장애바우처로는 아이 치료비의 10%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서울시립병원 은평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2~3년 대기해야 되는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 은평구 40대 여성 프리랜서

④ 돌봄 시간 공백

자녀 방학 중 돌봄 공백, 야간·긴급 돌봄 부재, 초등 이후 방과후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었다. "07시~21시 키움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진행되었다.

| | |
|-------------|------------------------------------|
| 방학 돌봄 공백 | 워킹맘 방학 초고학년 제외 — 오전 돌봄 최소 보장 요구 |
| 야간·긴급 돌봄 | 퇴근 지연 시 맡길 곳 없음, 키움센터 07~21시 확대 요구 |
| 중·고등 방과후 사각 | 의무교육인데 중학생 이후 방과후 돌봄 제도 전무 |
| 복직 후 초기 공백 | 복직 앞두고 초1+영아 스케줄 고민 — 아버지가 직접 서술 |

"워킹맘 방학 때 돌봄 못 들어가는 초고학년부터도 오전 돌봄이랑 밥 주는 곳 필요해요. 1시까지만이라도 제발 돌봐주세요." — 송파구 40대 여성 직장인

"07시부터 21시까지 하는 키움센터 확대해주세요." — 성북구 40대 여성 주부

"퇴근이 늦어질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화려한 볼거리에 치중하지 말고 시민의 고통을 살피주세요." — 마포구 30대 여성 구직자

⑤ 돌봄 구조 변화 요구

현재 돌봄 구조의 젠더 편향성, 공동체 돌봄의 부재 등이 지적되며 돌봄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가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생활돌봄자 제도의 도입 역시 제안되었다.

| | |
|-----------|--------------------------------------|
| 공동체·마을 돌봄 | 마을다운 마을이 없다, 1인가구도 돌봄이 필요하다, 안부 커뮤니티 |
| 젠더 편중 해소 | 육아·돌봄이 여성에게 집중, 가족 부담 문화 확산 요구 |
| 생활동반자법 | 혈연·혼인 무관하게 서로 돌볼 수 있는 생활동반자 제도 직접 요구 |

"마을 다운 마을, 공동체 다운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광진구 30대 남성 자영업

"나를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혈연·혼인·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서로 돌볼 수 있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서대문구 30대 남성 직장인

5-9 **교육**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입시 지옥·사교육 격차·여학교 공학전환 반대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교육 파트는 성별·연령별로 다른 고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0~50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과중, 공교육 불신, 지역별 교육격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20대 이하 여학생들의 여학교 공학전환 반대, 학교 내 성희롱 문제 등이 고충으로 드러났다. 그외에 평생교육, 문해교육, 다문화교육, ADHD 아동 지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고충도 나타났다.

5-9-1. 분석 개요

교육은 20대 이하와 40~50대가 주요 응답자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의 고충이 큰 차이를 보였다. 40~50대는 학부모로 체감하는 교육비와 공교육의 질적 문제 등이 주요한 문제였다면, 20대 이하 10대 여성 청소년들은 여학교 공학전환 반대, 학교 내 성희롱·딤페이크 피해 묵인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5-9-2. 주제별 분석

① 사교육비 과중·공사교육 격차 — "학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공교육은 이미 학원을 다닌다는 전제 하에 가르친다",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버겁다"는 응답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이 출산 기피·저출생으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다수였다. 학군지와 비학군지 간 교육 인프라 격차, 강남·목동 등 특정 지역 사교육 집중화에 대한 불만도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 | |
|--------------|--|
| 공교육 학원 전제 구조 | "공교육이 학원 다닌다는 전제로 진행" — 학원 미이용 학생 실질 배제 |
| 사교육비 생활비 잠식 | 3자녀 사교육비 과중, 생활비 대부분 교육비로 지출 — 40~50대 학부모 집중 |
| 지역별 교육 격차 | 구로·금천·중랑·성북 학원 부족, 강남·목동 쏠림 — 서울 내 교육 불평등 |

| | |
|-----------|--|
| 방과후·돌봄 차별 |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외, 민간방과후 역차별 — 집단 청원 형태 |
|-----------|--|

"사교육이 미쳤어요. 공교육은 그냥 이미 학원을 다닌다는 전제 하에 가르치고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못 다니는 애들은 버겁습니다. 대학을 가야 사람으로 대우해주는데, 돈을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 관악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요. 목동이 학군지라는 걸 아실 텐데 학군지에 사는 평범한 고딩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주변 친구들 중 반 조금 안 되게는 이미 우울증이에요." — 양천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서울시 민간방과후교실 원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학교방과후나 키움센터는 지원을 하는데 민간 방과후교실도 보육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은평구 30대 여성 주부·육아·돌봄

② 여학교 공학전환 반대·학교 내 성희롱 — 10대 여학생의 집단 목소리

강서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서초구 등에서 10대 여학생들이 여중·여고 공학전환 반대의견을 조직적으로 서술했다. 동시에 학교 내 성희롱·딤페이크 피해 목인, 교사의 무대응이 함께 지적되어 학교가 여학생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었다.

| | |
|------------------|--|
| 여학교 공학전환 반대 | 강서·광진·강동·송파 등 10대 여학생 집단 응답, "여성 교육공간 보장" 요구 |
| 자사고 성별 불균형 지적 | 여학생 입학 가능한 자사고 현저히 부족 — 교육권 평등 요구 |
| 학교 내 성희롱·딤페이크 목인 | 친구 딤페이크 피해 학교 방치, 성적 발언 무대응 교사 — 강력 조치 요구 |
| 성교육 강화 요구 | 남학생 대상 여성 존중 교육, 생리 등 신체 교육 정규화 요구 |

"여중, 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 문제로 공학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해하나,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여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 강서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공학에서 남학생들의 여혐 발언을 들으면서 그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혐오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송파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친구가 디페이크 피해자인데 학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 조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노원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③ 입시제도·고교학점제·5등급제 —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학부모 모두에서 혼란과 불만이 표출되었다. 선택과목 환경이 학교마다 달라 학군지 쏠림이 심화된다는 구체적 지적, 1등급(상위 4%)이라는 좁은 문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 입시 제도 변화를 맞벌이 부부가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함께 나타났다.

| | |
|-----------------------|--|
| 5등급제·학점제 현장 혼란 | 선택과목 환경 학교별 차등, 학군지 쏠림 심화 — 40대 학부모 직접 지목 |
| 1등급 4% 구조 비판 | "모두가 4%를 향해", 입시 경쟁이 청소년 우울증·자살로 이어진다는 직접 서술 |
| 정책 일관성 부재 | "전 정권 해놓은 걸 무조건 바꾸려고만 한다" — 교육 정책 잦은 변동 비판 |
| 서울 학생 지역 역차별 | 서울 학생이 지방 대학 합격선에서 역차별 — 지역균형선발 문제 지목 |

"고교 선택과목제의 시행 명분과 다르게 현장의 환경에 따라 과목 수의 차등이 심합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대책을 세워주세요." — 강남구 40대 여성 주부·육아·돌봄

"1등급은 4%밖에 되지 않는데 모두가 그 4%가 되어야만 한다고, 꿈도 없는데 무작정 1등급이란 숫자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 강남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진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진로 정하기도 힘든데 학교는 진로를 빨리 정하라 하고, 어른들은 제 진로 돈 못 번다고 다시 정하라 하는데 전 뭐 어떡해야 해요?" — 동대문구 10대이하 여성 학생

④ 교육 사각지대 — 평생교육·문해교육·다문화·특수교육

응답 수는 적지만 제도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 목소리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산업화 시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성인 문해학습자 지원 제도 요구, 급증하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부재, ADHD 아동의 특수교육 대상자 미해당으로 인한 지원 공백, 은퇴 이후 재취업·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요구가 포함되었다.

| | |
|-----------------|---|
| 성인 문해교육 제도화 | 산업화 희생자·여성차별 피해자 대상 문해교육 국가 책임 요구 |
| ADHD 아동 특수교육 공백 | 장애등급·특교자 해당 안 되는 ADHD 아동 제도 사각지대 — 복합 진단 동반 |
| 다문화 아동 교육 인프라 | 급증하는 이주민 자녀 교육 지원 주민센터 중심 촘촘한 연계 요구 |
| 평생교육 확대 | 은퇴자·경력단절자·어르신 대상 실용 교육 프로그램·접근성 개선 |

"문해학습자들은 산업화의 대표적 희생자이자 여성차별의 피해자다.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교육권으로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원제도 마련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 동대문구 60대 남성 은퇴·노년

"ADHD 아동들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고 특교자도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경계선지능이나 발달 지연, 자폐스펙트럼, 우울증, 자해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송파구 40대 여성 주부·육아·돌봄

"서울시민 누구나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직장인, 경력단절자, 어르신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양천구 40대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5-10

의료·복지 접근성

전체 데이터 현황

요약

복지 접근성·제고응급실 공백·정신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 나타나

의료·복지 접근성은 응답자 수는 가장 적지만 돌봄 당사자, 주변인 등의 밀도 높은 답변이 눈에 띈다.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현 복지 구조에 대한 비판, 응급실과 공공병원 부족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인프라의 부족, 동료지원센터와 낮활동 배우처 확대, 발달·지체·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복지시설 접근성 확대 등이 주요하게 요구되었다.

5-10-1. 분석 개요

의료·복지 접근성은 여성, 50~60대가 주요 응답자로 나타났다. 타 의제 대비 은퇴·노년 비율이 두드러진다. 생활유형에서는 직장인이 가장 많지만, 기타, 주부·육아·돌봄, 은퇴·노년, 자영업이 고르게 분포해 돌봄 당사자와 주변인 모두가 응답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파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신장애인 관련 당사자·활동가들의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응답이다.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토로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10-2. 주제별 분석

①

모르면 못 받는 복지 — 정보 사각지대와 복지 설계 문제

"세금은 칼같이 걷는데 복지혜택은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핵심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신혼부부정책·신생아정책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어도 아는 사람만 신청하는 상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환경·공간 문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다제약물 관리 인프라 부재 등이 포함되었다.

복지 정보 접근 격차

알아야만 받는 구조, AI 활용 선제적 복지 안내 시스템 요구

| | |
|--------------|--|
| 지역아동센터 처우·환경 | 키움센터 대비 차별, 공간 열악,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
|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 사는 곳에서 나이 들 권리, 요양원이 아닌 재가 돌봄 공공 책임 |
| 다제약물·마약 관리 | 10~30대 마약류, 고령층 다제약물 지역약국 인프라 연계 관리 요구 |

"세금은 칼같이 걷는데 복지혜택은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구조입니다." — 구로구 3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

"요양원이 아닌 사는 곳에서 나이 들어 갈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면 해요. 돌봄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 노원구 40대 여성 직장인

"의료는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보다 수익성을 따지는 느낌이고, 복지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끼리 나눔 같은 느낌."

— 도봉구 60대 여성 은퇴·노년

② 응급실·공공병원·의료 접근성 부족

응급실 포화, 소아 야간진료 공백, 전문 진료 대기 수시간 등 의료 접근성 저하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었다. '병원에 예약하고 가도 2시간 기다려 2~3분 진료'라는 표현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신설 무산, 도봉 지역 소아 야간진료 병원 부재 등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도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

| | |
|----------------|---------------------------------------|
| 응급실 포화·공공병원 부족 | 대학병원 응급실 마음 편히 갈 수 없다, 공공병원 확대 요구 |
| 소아 야간진료 공백 | 맞벌이 부부 아이 아파도 갈 곳 없음 — 도봉·중구 등 직접 지목 |
|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무산 | 13만 주민 의료 핵심 인프라 보건복지부 일방 무산 — 집단 청원 |
| 노인·장애인 전문병원 부족 | 정밀검진 필요 노년층 대형 병원 의존, 장애인 이용 가능 병원 부족 |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도 기본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의사와의 진료 2~3분 받고 나오는 행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서초구 60대 남성 자영업·소상공인

"맛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 아파도 병원에 갈 데 없고, 있어도 집에 가면 7시 넘는데 예약 마감이라 하고. 우리 구에도 야간진료 있는 어린이병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도봉구 40대 여성 직장인

"위례신도시 약 13만 주민의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인 위례종합병원 신설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송파구 40대 남성 직장인

③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탈원화·탈시설의 요구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복지 종사자들이 탈원화 조례 제정, 동료지원센터 공간 지원, 낮활동바우처 확충,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자립지원센터 지역 확충 등을 구체적 수치·사업명과 함께 직접 제안했다. 정신장애인의 평균 병원 재원기간이 OECD 평균의 6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응답도 포함되었다.

| | |
|-----------------|---|
| 탈원화 조례 제정 요구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조례, 민관협의체 구성 — 당사자 집단 청원 |
| 동료지원센터·낮활동바우처 | 위기 대응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SH 협업 공간 지원 요구 |
| 자립지원센터 지역 확충 | 북부 지역 자립센터 부재로 1~1.5시간 이동 — 접근성 개선 절실 |
|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신설 | 장애 유형 중 고용률 최저(10%), 권리형 일자리 발달장애 편중 비판 |

"저는 조울증입니다. 매주 서울동행동료지원센터에 가는데요. 정신장애인 자립센터가 북부에는 없어서 1시간, 1시간 30분을 가야 합니다.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늘려주세요." — 강북구 50대 여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무조건적으로 정신병동에 입원되어야만 하는 위험 인물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치료와 지원들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가 필요합니다." — 중랑구 30대 여성 구직자

"정신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자립도 할 수 있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주세요." — 도봉구 60대 남성 직장인

④ 장애인 이동권·복지시설 접근성 — 이동할 권리, 살아갈 권리

발달장애·지체장애·시각장애·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포함되었다. 장애인콜택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대기 지연,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 접근성 불량, 시각장애인 버스 탑승 시스템 부재, 뇌병변 아동 복지 사각지대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중증 와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 확대, 노원구 장애인 복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등 지역별 격차도 직접 서술되었다.

| | |
|----------------|--|
| 장애인콜택시 시스템 개선 | 운영 시스템 설정 수정만으로 증차 효과 가능 — 구체적 개선안 직접 제안 |
| 발달장애인 복지관 접근성 | 교통 불편한 곳에 위치한 발달장애 전문 복지관, 광진·노원 직접 지목 |
|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접근 | 버스 노선번호 음성안내 부재, 키오스크 접근 불가 — 디지털 배리어프리 |
| 장애 유형별 복지 사각지대 | 뇌병변·발달장애 아동 복지 공백, 중증 와상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부족 |

"파킨슨으로 거동이 힘든데 장애인 택시는 이용이 안 된다네요. 장애인 택시의 이용 범위가 넓으면 좋겠어요."

— 영등포구 70대이상 여성 은퇴·노년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착한 버스에서 노선번호 음성안내가 가능하고 하차벨을 공용 리모콘으로 작동 가능한 서비스를 설치해 주세요." — 종로구 20대 여성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스템 문제입니다. 운영 시스템 설정만 수정하여도 증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은평구 50대 남성 직장인

6. <차기 시장에게 바란다> 결과분석

Q8 응답 4,818건 전수를 분석하였음. 시민들의 요구는 5개 주제로 수렴됨.

① 전시행정 NO, 생활행정 YES - 가장 낮은 곳에 와닿는 행정

가장 강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임. 한강버스·수상택시·광화문 재개발 등 가시적 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외곽 교통·생활 공원·지역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 인프라 요구가 대비를 이룹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이동권·홀몸노인·경계선 지능 아동·중장년 구직자·예술인 공간 등 제도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간 집단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함께 등장함. '보여주기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 닿는 행정'이 두 요구를 하나로 연결함.

“보여주기식, 세금낭비 행정 말고 진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구석구석 살피는 행정을 해주세요.”

— 관악구 행운동 · 20대 남성

“노인복지 신경써주기. 청년 정책은 직수 효과 위주로 많이 생기는데, 노인들은 갈 곳 없어서 주택단지 앞에 그냥 앉아 있거나 폐지 좁는 분들이 말할 것도 없어요.”

— 은평구 역촌동 · 30대 여성

“가장 낮은 곳에서 시정을 하면 서울이 제대로 설 듯.”

— 은평구 수색동 · 20대 남성

② 공약 이행과 행정 신뢰 회복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18건), 성동구치소 원안(64건), 올림픽파크포레온 명일로 지하보행로(29건), 신구로선 착공(123건) — 구체적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항목에 걸쳐 반복됨. '선거 때마다 거짓 공약으로 주민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구조적 불신으로 읽힘.

“매번 시장 선거 때마다 공공주택 정책을 약속하지만 정작 뽑아놓으면 지키지 않는다. 제발 선거용이 아닌 체감되는 실행 공약을.”

— 서초구 양재1동 · 50대 남성

“‘꿈꾸는 자들의 도시’에서 ‘꿈꾸는 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바꿔주세요.”

— 은평구 역촌동 · 30대 여성

③ 여성 안전과 젠더 의제 — 안전과 생명권 존중

이번 보고서에서 20대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난 요구임. 성범죄 처벌 강화, 교제폭력 공식화, 딥페이크·스토킹 대응, 성매매 집결지 철거,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요구함. 처벌 강화와 정책 개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과 공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교제폭력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성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함.”

— 강동구 암사2동 · 20대 여성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서울이라면 남성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서울이 될 것임.”

— 성동구 옥수동 · 20대 여성

④ 상생적 균형 발전 — 강남·도심 집중 탈피

교통, 교육, 문화, 녹지 모든 영역에서 도심·강남 집중과 외곽 소외에 대한 불편사항이 반복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프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서울 생활임금이 전국 9위(광주 대비 시급 1,182원 낮음)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서울 물가대비 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음.

“강남이나 용산 부자들이 사는 곳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계속 불편한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 영등포구 신길7동 · 50대 여성

“보여주기식 하드웨어 개선이나 일회성 대형 행사보다, 장기적 관점의 마스터플랜을 정직하게 세우고 추진해주세요.”

— 성동구 성수2가3동 · 30대 여성

⑤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시장의 독선과 전횡을 막고 시민숙의를 통한 갈등해결과 집단지성 구현을 위해 공청회 의무화, 시민제안 반영시스템 강화, 현장목소리 중심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항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남. “일부 어공과 늘공들만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반복됨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성북구 돈암2동 · 60대 남성

“서울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이고,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린 과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성동구 송정동 · 50대 여성

* 참조: 집단민원성 불편사항

동일 주제로 다수 시민이 반복 제기한 의견을 집계한 결과임. 특정 지역 현안이나 정책 사안에 대한 조직적 목소리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임. 총 7건, 합계 342건이 전체 데이터에 그대로 포함되어 분석됨.

| No. | 주제 | 응답수 | 주요 지역 | 관련 불편항목 |
|-----|-------------------------|------|-------------|-----------|
| 1 | 고척동 교통 소외 / 신구로선 착공 요구 | 123건 | 구로구 고척동 일대 | 출퇴근·교통 |
| 2 |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원안 이행 | 64건 | 송파구 가락동 | 집값·월세 |
| 3 | 도봉산 주변 환경 정비 | 37건 | 도봉구 도봉1동 일대 | 녹지·환경 |
| 4 | 올림픽파크포레온 명일로 지하보행로 개설 | 29건 | 강동구 둔촌1동 | 출퇴근·교통 |
| 5 | 영등포 타임스퀘어 인근 성매매 집결지 철거 | 20건 | 영등포구 | 안전·치안 |
| 6 |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원안 복구 | 18건 | 영등포구 문래동 | 여가·문화·인프라 |
| 7 |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 3건 | 송파구 위례 | 출퇴근·교통 |
| 합계 | 7건 | 342건 | | |

주제별 대표 의견

1. 고척동 교통 소외 / 신구로선 착공

“구로구 고척동에는 지하철이 없음. 서울에 지하철이 없는 동네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오점이기도 함. 하루빨리 신구로선 전철역 착공을 추진해 주십시오.” — 구로구 고척동 · 50대 남성

2.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원안 이행

“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 파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분양 90·임대 10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마다 거짓 공약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임.” — 송파구 가락동 · 30대 남성

3. 도봉산 주변 환경 정비

“서울은 도심 곳곳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립공원과 산을 품고 있는 독보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 이 소중한 녹지 자산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기획의 부재로 인해 그 잠재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음.” — 도봉구 도봉1동 · 40대 여성

4. 올림픽파크포레온 명일로 지하보행로

“올림픽파크포레온 4단지 거주 중임. 명일로가 국가 땅이라 지하보행로를 못 뚫었다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음. 아이들 등하교 시 큰 길을 건너야 해서 우천 시 위험함.” — 강동구 둔촌1동 · 40대 여성

5. 타임스퀘어 인근 성매매 집결지 철거

“타임스퀘어 옆에 성매수 거리가 너무 불편함.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바로 옆에 큰 성매매 거리가 있는지 놀람.” — 영등포구 · 20대 여성

6.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원안 복구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원안 복구 절실하게 원함.” — 영등포구 문래동 · 50대 여성

7.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위례신사선 착공해주세요.” — 송파구 위례 · 30대 여성